



KCCD가 주최한 4.29 조찬기도회에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하나되어 LA를 치유하자”

KCCD, 4.29 조찬기도회 열고 종교, 인종간 화해 요청

“하나됨이 있는 곳에 화해와 치유가 있다.”

4.29 LA 폭동 25주기를 맞아 지난 4일 종교계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조찬기도회를 했다. LA 한인타운 월터 길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오전 7시부터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기도회에는 100명에 가까운 종교인들이 참석했다.

이 행사를 주최한 KCCD(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의 임혜빈 대표가 인사말을 전했고 이사장 박종대 목사가 개회기도를 했다.

이어 월서회당의 랍비 보우 사피로가 인사했다. 그는 “우리는 25년간 긴 여정을 왔다. 그러나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며 LA의 인종 화해에 대한 종교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행사에는 에릭 가세티 LA 시장을 대신해 대니얼 탐 연관관도 참석해 짧게 인사했다.

이어 아자사퍼사픽신학교의 마이클 마타 디렉터의 사회로 대담이 진행됐다. 전 상원의원 채플린인 크리스 할버슨 목사, LA의 대표적 흑인 대형교회인 크라이스트 아우어 리디머 교회의 마크 헛락 목사, 전

국 히스패닉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의 제시 미란다 박사, 베벌리힐스 회당의 명예랍비 로라 겔러, 박종대 목사가 4.29 당시를 회고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박종대 목사는 당시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가 운영하던 가게를 대신 지키다가 폭도들과 맞닥뜨렸던 상황을 회고하면서 “너무나 두려웠다. 그러나 폭도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한 이 사회구조가 악했던 것”이라며 변화의 노력을 요청했다.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대표한 제시 미란다 박사는 “한인은 총으로 자기 상점을 지키고, 히스패닉은 한인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흑인은 그것을 지켜보는 사진을 봤다”면서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은 한인 2세들의 교회인 영락 셀러브레이션 교회의 마이클 리 목사도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Blessed to be a Blessing(복이 되기 위해 복 받다)”이란 제목의 메시지에서 “아브라함은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우리는 이 복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정의를 이루기 위해,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와 치유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도시, 주, 국가, 온 지구에 어떤 복이 될까”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이 행사에는 한아름합창단도 참석해 아리랑과 부채춤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KCCD는 오는 4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동양선교교회에서 4.29 폭동 25주년을 기념하고 인종간 화해를 요청하는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 행사 역시 다민족, 다종교인들이 참석한다.

임혜빈 대표는 “한인 커뮤니티는 1992년 폭동 이후 LA 사회의 일원으로 더욱 성장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일을 해 나아가야 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LA 시 각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해 우리가 미래를 위해 하나의 공동체로서 어느 지점까지 전진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이윤형 기자

남가주에 진출한 신천지 어떻게 분별하고 대처할까

LA동부교협 신천지 대책 세미나

LA동부교역자협의회가 신천지 이단 대처 세미나를 개최했다. 3월 30일 나성한미교회에서 열린 목회자 모임 중 동부교협은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를 강사로 이 세미나도 함께 열었다. 고 목사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에 잠입한 신천지의 추수꾼 포교 전략을 공개했다.

추수꾼은 교회에 대해 사전 정보를 파악하고 자연스러움을 가장해 교회에 ‘전도되어’ 들어오는 것이 시작이다. 특히 새신자 초청 행사 등을 적극 활용하며 교회 종직자들을 미리 파악하고 그들로부터 전도되는 식으로 치밀하게 교회 내에 자신의 입지를 만든다.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교회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어떤 교인들을 ‘추수’해 갈지 물색한다. 이때 확보한 정보들은 교회 내에 분열을 조장해 교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데에 활용되기도 한다. 추수꾼들은 자신에 대한 교인의 신뢰를 이용해 신천지 교리를 주입하는 성경 공부를 교회 밖에서 하도록 권한다.

따라서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를 유도하거나 목회자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난해한 성경 구절을 들며 금금증을 유발한다거나 정상적 현금 생활을 하지 않으

면 신천지 추수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고 목사는 교회에서는 새신자가 등록할 시 반드시 심방하고 새가족 성경공부를 하게 하며 추수꾼을 경계하는 광고를 자주 하고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인들을 계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에 잠입하는 것 외에도 신천지는 미술치료, 설문조사, 문화센터, 각종 세미나, 사주풀이, 예언 등을 이용해 전도한다. 따라서 신천지의 주요 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교주 이만희를 예수님과 동일시 하거나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하지 못했기에 이것을 완성시킬 영으로 오신 재림주가 필요하다는 교리가 대표적이다. 신천지는 성경보다 교주의 가르침을 중시하며 비유풀이, 삼시대론, 동방교리(재림주가 한국에 오고 한국이 신앙 종주국이 된다는 교리), 사람 보혜사 교리, 14만4천 교리 등을 내걸며 신천지만의 구원을 설교한다.

고 목사는 남가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천지 위장 교회들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는 한편, 유튜브 자료 영상 등도 제공했다. 이날 목회자 모임은 예배와 이단 세미나, 식사와 교제 시간으로 진행됐다.



LA동부교협 모임에 참석한 목회자들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류차 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323.734.4881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갈라복사/갈라프린트/갈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Since 1999

Irvine
La Canada

LA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가을학기 학생모집 K-9th
썸머 스쿨 6/5(월)~7/28(금)

New Covenant Academy
Now Available On
App Store Google Play Windows Phone
Amazon Appstore
무료 앱 다운로드

입학 문의 (213) 487-5437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1,350점 기록(일반 학교 평균 1,000점)
- 지난 18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운영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명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남가주가스펠교회가 회원사무총회를 열고 다양한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죽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되자

남가주가스펠교회 이원준 담임목사 청빙건 확정

남가주가스펠교회가 3월 26일 회원사무총회를 열고 이원준 담임목사의 청빙건을 확정했다. 한인회중과 영어회중이 총회에 참석해 95% 이상의 지지를 받아 이원준 담임목사 청빙건이 통과됐다. 이원준 목사는 “성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에 감사하다”면서 “예수님 한 분만을 보고 죽고자 하는 각오로 전

도와 선교,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일예배에서 이원준 목사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요한일서 3장 16-18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느니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이목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요한일서 3장

에서 찾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목숨까지도 내어 놓을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까지도 사랑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재단 설립을 통해서 교회 부동산을 귀속시키는 건도 교인 투표를 통해 확정됐다.

이인규 기자

주일학교 교사 위한 CEF 컨퍼런스

“헌신된 교사가 있다면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다.”

오는 4월 15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알바인 베델한인교회(김한요 목사)에서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컨퍼런스가 열린다. 어린이전도협회(CEF) 한인지회에 소속된 20여 명의 전문강사들이 교회를 방문해 다양한 선택 세미나는 물론 단기선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VBS 프로그램과 인형극을 소개한다.

특별히 이번에는 베델한인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 어린이 성교육 5주 과정, 어린이 제자훈련, 어린이 전도폭발, 어린이 크리스마스 뮤지컬, 어린

이 창조과학 캠프 등 10가지의 프로그램을 소개될 예정이라 주목된다.

교회 측은 “교회학교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라며 “자녀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멋진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지 않고 선대이 크리스천으로만 자란다면 미국은 현재 유럽의 모습으로 전락할 것”이라 우려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잘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교사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아이들이 나올 것”이라 강조했다.

문의) 951-454-2188
213-273-5534



국제음악선교회 창단예배 후 기념촬영했다.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자녀들의 음악적 재능을 개발해 커뮤니티와 교계, 선교지를 섬기는 비전을 가진 국제음악선교회가 24일(목) 오전 11시에 LA연약교회(고귀남 목사)에서 창단예배를 드렸다. 국제음악선교회는 소외된 양로원과 병원, 홈리스를 찾아 찬양과 율동, 악기로 위로하며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모집 부문은 합창과 챔버 오케스트라, 워십댄스로 음악 선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나, 음악적인 재능을 발굴하고자 하는 모든 자녀들이 참여 가능하다.

선교회 이사장인 최순길 목사(남가주교협 공동회장)는 “국제음악선교회가 치유가 필요한 소외된 곳에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협력하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선교회의 사역에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1부 예배와 2부 창단식으로 진행

된 순서에서 표세홍 목사(국제음악선교회 이사)의 인도로 최영하 목사의 기도 후에 고귀남 목사가 창세기 37장 5절을 본문으로 “꿈이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고목사는 “요셉을 연단시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든 선교회가 마주한 현실이 고난일지라도, 고난을 인내하고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회가 되라”고 말했다.

최순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이어진 창단식에서는 이동규 목사가 창단 배경을 설명한 후 워십댄스 담당 지도자인 진영자 권사 팀의 워십댄스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창단식에는 KCCD 이사장인 박종대 목사, 미주한인재단 회장인 이병만 장로가 격려사와 축사를 전했다.

선교회의 연락처는 전화 213-386-0300, 213-422-8916이다.

이인규 기자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가 개강예배를 드렸다.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개강예배 드려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가 개강예배를 드리고 2017년도 봄학기를 시작했다. 23일(목) 오전 11시에 본교 채플실에서 드린 예배는 엘리야 김박사의 인도로 시작돼 최명상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의 대표기도 후 홍정수 박사(갈릴리신학교 총장)가 고린도전서 1:23-24, 마가복음 8:34를 본문으로 “3개의 십자

가”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홍 박사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지신 용서의 십자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고난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십자가를 선포하며 크리스천은 십자가를 믿고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김

영구 목사와 OC교협 회장인 이호우 목사의 축사, 고영준 박사, 권다니엘 목사(UBU 총장)의 격려사, 전재학 목사의 특송 후에 유당열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의 봄학기는 3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첫 학위수여식은 6월 10일에 있을 예정이다. 문의) 213-272-6031

이인규 기자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11:25)

2017년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강사: 김영길 목사

일시 : **2017년 4월 16일(주일) 새벽 5:30**

장소 : **감사한인교회 예배당**

696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공동주관 : 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OC기독교교회협의회/OC목사회/OC장로협의회/OC평신도연합회

원고 준비는 철저히 그러나 의지하진 말라

이동원 목사의 설교 노하우 미드웨스턴 공개강좌

최고의 설교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가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공개강좌에서 자신의 설교 노하우를 공개했다. 3월 23일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서 “설교와 성령”이란 주제 아래 열린 강좌에서 이목사는 “나는 설교에 매우 신비한 영역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똑같은 설교 내용을 똑같은 설교자가 전해도 결과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단순히 설교자의 컨디션과 설교적 정황의 차이 때문일까”라고 물은 뒤 “설교에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했다. 이목사가 강조한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설교 때 은혜가 넘치거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뛰어넘는다.

먼저 성령이 설교자를 만들어 간다. 설교의 소명을 받기 전부터,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이다. 이목사는 “저는 어렸을 때 집안의 귀한 장남으로 혹여 다칠까 봐 밖에 나가서 놀지 못했다. 대신 책은 마음대로 읽을 수 있었다”면서 “나중에 설교를 위해 수많은 책을 읽고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저

의 성장 과정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 다음 성령은 설교 준비를 돕는다. 어떤 본문으로 어떤 내용을 설교할지 가르쳐 주시고, 이 본문에 대한 이해와 연구 과정을 돕는다. 적절한 관련 성구를 찾아내고 예화를 발견하며 진리를 현재 상황에 맞게 적용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이목사는 설교를 위해 성경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기면 성경에서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고 말했다. 그리고 설교가 시작되면 성령은 설교자가 열정을 갖고 설교하도록 역사하며 무엇보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도들의 삶에서 결실을 맺도록하신다. 이목사는 “마른 뼈와 같은 교인들이 설교 후에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지금 죽고 싶다’ 생각할 정도로 행복하다”고 전했다.

이목사는 “설교 준비에도 이성주의자와 신비주의자가 있다. 이성주의자는 자신이 철저히 연구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며 신비주의자는 설교 원고 없이 소위 ‘주시는 대로’ 설교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뿌린 대로 거둔다



이동원 목사 초청 공개강좌가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주최로 열렸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 설교 준비는 100% 내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곧 이어 “그런데 준비는 100% 내가 해야 하지만 설교는 100% 성령이 하셔야 하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치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다 준비한 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듯이 설교자가 철저히 준비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동원 목사의 입장이다.



이동원 목사

이목사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는 설교를 하려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만약 설교를 앞두고 두려워 떨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제 정신이 아니거나 타락했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했다. 그러나 “설교가 시작되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자유 가운데 설교하라”고 조언했다.

이목사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까? 일단 설교의 본문과 내용을 기도하며 구한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 놓고 그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찾는다. 그렇게 해서 전체 설교의 구조까지 모두 완성되고 나면 그제야 관련 서적, 주석 등을 보며 참고한다. 이목사가 설교 준비를 모두 마치는 시간은 토요일 정오. 자신이 묵회하는 교회에서, 자신이 설교하는 결혼식 외에 어떤 약속도 잡

지 않는 것이 철칙이다. 정오 이후부터는 가족과 대화하며 쉬거나 설교 원고를 계속 읽어보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한다. 그렇게 주일이 되면 이미 원고는 안 보고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외운 상태다. “최선을 다하여 원고를 준비하되 원고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그의 노하우다. 모든 설교 준비에 함께하신 성령께서 설교 강단에서도 그때마다 역사하셔서 설교 원고에 없는 내용을 더해 주기도 하고 빼기도 하시기 때문이다. “설교 중 성령의 자유로우신 주관적 지배에 융통성 있게 응답하라”는 것.

끝으로 그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설교하라”고 조언하며 강의를 마쳤다. 김준형 기자

결혼 전 청년들

‘이것들’ 반드시 점검하세요

제1차 유레카 컨퍼런스 마쳐

기프트상담치유연구원이 청년들을 위한 제1차 유레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관계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 컨퍼런스는 3월 11일 영어권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최됐고 4월 1일 한어권 청년들을 위해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행사 때에는 15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이 연구원 설립자이자 새사람전인치유 세미나로 유명한 리디아 전

박사(임상심리학)와 전달훈 박사(현직 전문의, 조셉메디컬그룹 원장)가 강사로 나섰다. 이 두 강사는 전문 지식과 임상 경험을 영성과 조화시켜 다양한 강의와 그룹 활동, 소그룹 나눔을 이끌었다.

참석자들은 자기 자각의 기술 및 자기 감정관리 기술, 내 안의 어린아이 발견하기, 올바른 하나님 이미지 회복,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등의 강의를 통해 깨달음과 회복을 경험했다.



영어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유레카 컨퍼런스가 지난 11일 개최됐다.

리디아 전 박사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또 부모나 이미 결혼한 친구들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결혼을 꺼리는 청년들도 늘

고 있다”면서 “왜곡된 자아상과 타인상, 하나님상을 결혼 전에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컨퍼런스 등록비는 99달러이

지만 웹사이트 www.giftheal.com으로 등록할 경우, 59달러로 할인된다. 문의) 전화 714-522-4438, 이메일 info@giftheal.com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성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남게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아이비 유학

3·7·21 재능캠프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Shelby Kwon
Director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ly.moon65@gmail.com
www.Mylvdream.com

2017년 부활절 메시지

죽어도 산다는 믿음으로 **‘죽어야 다시 산다’**는 교회의 부활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합니다. 교회가 혹은 개인이 회개할 것과 행할 것과 그래서 선포되는 것으로 다음 7가지를 주후 2017년 부활 메시지로 삼습니다.

- 1.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회개합니다.**
자기중심성을 회개하고, 공동체성, 관계성, 사회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시며, 관계적이신 배려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 2. 물질주의, 기복주의를 회개합니다.**
물질적 성공만을 복으로 여긴 죄를 회개하고, 영적이고 인격적인 신앙인들이 되어, 영이시며, 관계성속에서 인격적이신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 3. 양극화를 회개합니다.**
사회의 양극화 보다 더심각한 교회의 양극화를 회개하고, 공존의 도, 더불어살기를 행함으로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 4. 가식주의, 형식주의를 회개합니다.**
믿음을 행함이 따르지 않는 존재와 행동의 자기 모순의 가식을 회개하고, 행함있는 진실한 믿음으로 신실하신 참 진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 5. 비윤리적 부도덕을 회개합니다.**
도덕성을 경시한채 심리학적 목회에 치중한 죄를 회개하고, 우월한 도덕성을 기반으로 선을 추구함으로 거룩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 6. 생명경시의 죄를 회개합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추구하지 않는 잘못과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불러온 죄를 회개하고 영과 육을 함께 돌보고, 창조질서의 보전 신앙으로 생명의 주 창조자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 7. 진영 논리로 분열한 죄를 회개합니다.**
분열을 부르는 진영논리는 실패 혹은 패배의 답안지 말고는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연합으로 한 교회, 한분 하나님, 구별은 되나 분리는 아닌 개념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공동회장: 최순길 목사, 김재율 목사
준비위원장: 수석 부회장 엘리자 김 목사

초대합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

메이승 부활하셨습니다

일시 2017년 4월 16일 (주일) 오전 6시

장소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933 S. Lake St. Los Angeles, CA 90006

말씀 김요한 목사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담임목사)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사랑의 식사를 나누어드립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12〉

터키 남부 디야르 바크르의 선교사 가정들

필자는 지난해 터키 남부 지역들을 돌며 가정전도를 하였다. 남동부 지역에서 큰 도시 중 하나인 디야르 바크르에 도착했다. 그 도시는 인구 140만명 가량으로 쿠르드 종족이 밀집해서 사는 도시이며 PKK(쿠르드 독립 테러단체)가 활동하는 곳이기도 하다.

전도를 하며 다니던 중 한인 선교사들이 사역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렵사리 그 곳 시내버스를 타고, 연락이 닿은 한 분의 집을 찾아갔다. 마침 팀 사역을 하는 두 가정과 대학생 단기선교사 자매 두 명이 모여 기도회를 하고 있었다. 신 선생 가정과 한 선생 가정이었다. 그들은 평신도 선교사였다. 각기 두 자녀씩을 두고 있었다.

8살 되는 딸 아이를 둔 가정. 예쁘게 생긴 딸인데 약간 아파 보였다. 아픈가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1년 전 당했던 교통사고를 이야기 했다. 딸과 함께 마을 시장을 걷던 중 뒤쪽에서 속력을 내며 달려오던 삼륜 짐차가 딸 아이를 치었다. 아빠가 보는 앞에서 슬로우 비디오텍 공중에 떠오르는 딸 아이를 보며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 “하나님! 딸을 살려 주시면 이 곳을 평생 사역지로 삼을게요.” 순간의 기도였다.

떨어진 딸은 피를 흘렸고 응급실로 옮겨져 몇 번의 수술 후에 기적 같이 살아났다. 그후 아직도 기침을 하면 침에서 핏기가 나오지만 거의 몸을 추스릴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주실 것을 믿으며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다.

그들이 속한 선교회는 방침상 자녀들을 사역지의 현지인 학교에 보낸다. 처음엔 인종이 다른 자녀들을 그곳 아이들이 놀리기도 하고 딸들을 밀치기도 했지만 점차 친해지고 지금은 다들 가깝게 지낸다 한다.

필자는 같이 기도회를 마치고 그들이 준비한 짜장밥을 먹고 이 런저런 사역 이야기를 하다가 선교사님들에게 사역의 비전을 물었다. 한 선생이 대답했다.

“목사님! 이 도시는 7월 여름이 되면 수박 축제가 열려요. 몇 주간에 약 1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죠. 우리의 꿈은 그 1백만 명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성령집회로 모이는 것이예요. 기도해 주세요.”

아! 하나님! 이 엄청난 꿈을 들으셨지요.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1백만 명을 보내 주세요. 나는 그후부터 디야르 바크르를 위해 기도할 때엔 한국에서 했던 여의도 백만인 구령 집회의 장면이 떠오른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을 이루실 때까지 나도 그곳을 품기로 했다.



필자는 디야르 바크르의 한인 선교사 가정을 방문해 함께 기도했다.

비영리단체 세금 보고 및 운영 관련 무료 강의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세금 보고 관련 무료 강의를 선교와목회를위한정보센터 주관으로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도서관 GL2 강의실(201 S. Basque Ave. Fullerton, CA 92833)에서 4월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열린다.

비영리단체는 매년 5월 15일까지 IRS Form 990이라는 연방 세금 보고와 CA Form 199라는 California Exempt Organization Annual



제임스 구 교수

Information Return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3년 이상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비영리 단체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수강 대상은 목사, 선교사, 신학생, 전문인, 학교 관계자 등 비영리 단체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이다.

강의를 하는 제임스 구 교수는 현재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행정처장이면서 교회행정, NPO 및 IT 담당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의와 관련한 기본 안내자료는 당일 참석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더 자세한 강의와 관련된 책자 정보를 원하는 경우 Amazon.com 사이트에서 ‘James Koo’란 이름으로 검색하면 Management for Non-Profit Organization: A Complete and Practical Guide이라는 책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714-393-4595

대한민국민회

중가주 이민사적지 탐방

대한민국민회 권영신 이사장과 윤효신, 서경원, 배국희 부이사장 등은 지난 25일 중가주 한인 이민사적지 탐방 행사를 열었다. 역사를 사랑하고 아끼는 차세대들이 세워지길 바란다는 취지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인 보이스카우트 단원들과 학부모, 그리고 독립 운동가들의 가족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리들리를 방문해 서울의 독립문을 축소해 만든 리들리독립문에 도착했다. 이 독립문 양쪽 앞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해 애국지사 10인의 기념각이 세워져 있다. 탐방 둘째날인 26일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옥중에서 서거한 지



사적지 탐방단이 독립문 앞에서 기념촬영했다.

107년이 되는 날이라 행사가 더욱 뜻깊었다.

리들리에는 안창호와 이승만이 자주 묵으면서 나라의 독립을 논의했다는 버지스 호텔(1726 11th St. Reedley)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뜻있는 한인이 구매해서 대한

민국 독립 역사의 장소가 되길 바란다는 안내자의 소개도 있었다.

이번 탐방을 주최한 대한민국민회 기념재단은 1368 W. Jefferson Blvd. Los Angeles, CA 90007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323-733-7350이다. 권철헌 기자

재산 상속할 때

이것은 알고 계세요

LA와 알바인에 위치한 상속법 전문 윌터 최 변호사가 한국의 법무법인 에스엔 대표로 있는 송영욱 변호사를 초청해 한국 상속법과 세금에 대한 세미나를 최근 열었다.

미주 한인들이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한국 법과 세금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법, 미국법을 망라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세미나를 주최했던 변호사 및 관계자들

문의) 213-500-4362

LA 사무실) 3600 Wilshire Bl. #1814

알바인 사무실) 7700 Irvine Center

Dr. #800

뮤리에타장로교회 토요 새벽예배에 초대합니다

뮤리에타한인장로교회(김성수 목사, KPCA 소속)는 매주 토요일 새벽예배를 마치고 온 성도들이 교회 앞 칙필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김난영 장로, 김영애 권사 가정에서 아침식사를 대접했다. 담임 김성수牧사는 “테미콜라를 여행하는 분들은 토요일 새벽예배를 함께 드리고 식사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교회는 주일 1부 예배를 오전 8:00, 2부 예배를 오전 11:00에 드린다. 주소) 24736 Washington Ave. Murrieta, CA 92562 문의) 951-696-1034

기독일보

편집교문 : 박해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교문번호사 : 정찬웅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렌다,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스장학사가 커뮤니티의 미래와 함께합니다

리스장학생 모집

리스장학사가 반이민 정책에 힘들어 하는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모든 한인 학생과 부모님을 위해 리스장학사와 같은 작은 기업들도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장학금을 준비 했습니다.

목사님, 신부님 등 사회지도자들의 추천장과 학생 본인의 현재 상황, 꿈과 희망을 담은 한글 자기 소개서를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한 학생당 \$500, 20명에게 총 \$10,000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접수자격 :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한인 학생
이메일접수처 : HR@leesmortuary.com
접수기간 :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발표 : 6월 5일 개별 통보
지급일시 : 6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지급장소 : 리스장학사 City of Orange 본사
홈페이지 : www.leesmortuary.com

최저가격 보장제

-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학사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무료출장서비스

- 고인의 교회, 자택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사카고 스미스 코로한
185 EAST NORTHWEST HIGHWAY,
PALATINE, IL 60067
아들란타 리장학사
4067 INDUSTRIAL PARK DRIVE
NORCROSS, GA 30071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Since 1966
리스장학사
Lee's Mortuary FD1164

나실인의 사명

사사기 16:15-30



삼손은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면서 교만해지고 경거망동(輕舉妄動)하고 타락하는 폐단들을 많이 봅니다. 삼손이 세상에 생겨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용도사명을 목적으로 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실을 잊어먹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나게 하시기 전에 그 부모에게 천사를 보내 예언하기를 아이를 잉태한 후에는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므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될 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혼부터 잘못 시작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같은 나실인과 결혼해야 함에도 잘못된 생각으로 이방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몸으로는 부부였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원수기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여자의 배신으로 인하여 삼손은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 후 그 장인마저도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중 배신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 여우 삼백 마리를 잡아 꼬리를 돌씩 묶어 횃불을 쫓아 추수 직전의 곡식밭으로 몰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신변의 위험을 느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장정 일천 명을 처죽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임에도 삼손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 한 기생에게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구별되이 나게 하시고 나실인으로 택하셔서 무한한 신의 능력을 체험시켜 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하는 사명을 계속해서 독려하시고 재촉하셨지만 삼손은 그것은 뒷전이고 육신의 정욕을 좇아 기생을 찾아간 것입니다. 삼손이

기생에게 들어갔다는 소문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했습니다.

잠언 5:20에 “내 아들이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했습니다. 이것은 선민사상으로 길들여진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해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고 기생과 함할 수 없음을 밝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묵도하면서도 그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내고자 하는 생각은커녕 무사안일주의로 육신의 정욕에 치우쳐 방탕하고 타락하는 일에 정신이 홀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이 범죄하는 장소에서도 그의 생명이 위태로움을 염려하시어 하나님이 능력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밖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고, 매복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삼손은 지난번에도 여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이번에도 음녀로 인해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사사기 16:1에 “이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했습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은 ‘연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가서 “삼손을 꺾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일천일백을 네게 주리라(삿6:5)”고 꺾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서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큰 돌로 사람 모양으로 깎아 만든 다곤신을 섬겼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던 그들은 삼손이 하나님의 나실인이란 것을 알기에 더욱 앓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들릴라는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고 삼손에게 노골적으로 말하며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 했지만, 삼손은 여러차례 거짓으로 말하여 곤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

지를 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 번 삼손을 잡을 수 없었던 들릴라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랐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삼손이 번뇌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나실인이고 자신의 사명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것이라는 생각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삼손은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고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마치 그의 힘의 근원인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머리털 자체는 하나님과 그의 부모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표입니다. 삼손은 이 언약의 상징을 누설하고 파기함으로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위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나신 것입니다.

머리털을 밀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두 눈을 뽑히게 되고 가사에 내려가 눈줄로 매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다곤신이 자신들의 원수인 삼손을 붙잡을 수 있게 했다고 즐거워하며 제사를 드리며 그들의 신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자신

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처신을 잘못했을 때 그 사람 신세가 불행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를 세워 기대 가운데 사용하시려던 하나님의 영광이 엉망이 되고 마귀의 놀이개감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재주를 보기위해 삼천명 가량이 모여 있는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 서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뺄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만약 그가 사명자의 투철한 의식이 있었다면 자신의 두 눈을 뺄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비참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대걸고 맡기신 나실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브레셋에게 더 큰 행패로 시달림 받은 것을 생각하고 힘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도 죽을지도 모를 일에 힘을 달라고 하는 삼손을 좋게 여기셨고 그가 마지막에 사명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서서히 해방의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LA 미주 복음방송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7 동부지역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 사 회: 김신일 목사(유니온교회)
- 설 교: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 기 도: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
- 헌금기도: 신용환 목사(나성한미교회)
- 합심기도
 - 1) 조국과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
최준우 목사(엠마오교회)
 - 2) 동부 지역의 교회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나세염 목사(호산나교회)
- 광고 및 안내: 송재호 목사(할렐루야 교회)
- 축 도: 김지성 목사(글로벌 선교교회)

일시 : 2017년 4월 16일(일) 새벽 5:30
장소 : 할렐루야한인교회 (송재호 목사 시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전화 : T.(909)595-3110





담임목사 청빙

아가페 장로교회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에 있으며 1976년도에 설립되어 PCUSA 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자격요건**

1. 정규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한 분
2. 5년 이상 목회경험(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3. PCUSA 소속 및 가입이 가능한 분
4.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2. 졸업증명서(대학교와 M. Div.)및 목사안수 증명서
3. 자기 소개서
4. 목회 철학과 비전
5. 최근 1년 이내의 설교 2편(CD 또는 youtube link)
6. 추천서 2통(봉인)
7. 본인 및 가족 사진 각1매

■**제출기간** : 2017년 4월 16일(일) 까지

■**제출처** : Agape Church PNC

1250 - I Newell Ave #236., Walnut Creek, CA 94596
E-mail: apcpcnc2017@gmail.com

■**기 타** : 제출서류는 우편과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가페 장로교회

www.agapepc.or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담임목사 청빙

시드니 새순장로교회는 호주 시드니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2년도에 설립되어 대양주 예수교 장로회 호주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말씀으로 제자를 바로 세우고, 기도에 전념하며, 선교와 전도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의 비전 아래 영적 부흥과 새 세대를 세워나가는 투철한 소명의식과 이민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갈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요건**

1. 학력 : 본 교단이 인정한 정규 신학대학원(M.Div) 졸업자 (총신, 교신, 합신, Christ College(P.T.C.), 미주 총신 등)
2. 연령 : 만 45세 이상
3. 경력 : 목사 안수 후 3년 이상 담임목회 경력
4. 이민교회 경험 및 영어 가능자 선호
5. 호주에서 목회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본인 및 가족사진 첨부)
2. 졸업증명서(대학교와 M.Div) 및 학위 증명서
3. 목사 안수 증명서
4. 자기소개서(신앙 및 성장 배경, 목회 소명과 목회 경험 등 포함)
5. 목회계획서 : 목회 비전과 목회 철학, 지원 동기 등(A4용지 4매 이내)
6.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2편(CD 또는 웹사이트 Youtube 등) link
7. 존경하는 분의 추천서 2통(봉인)
8.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주보(4주간)

●**서류제출 마감일** : 2017년 5월 13일

●**제출처**(등기우편 또는 Email 접수)

- 우편 : Sydney Sae Soon Presbyterian Church
PO Box 4871, North Rocks NSW 2151, Australia
- Email : chungbing@saesoon.org

●**기 타**

- 제출서류는 우편과 Email 로만 접수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www.saesoon.org

시드니새순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사랑하면 마음으로 봅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을 지켜보면 제자들은 이 여인을 책 망했습니다. 옥함을 비싼 값에 팔 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낭비하느냐고 분개했습니다(마 26:8). 그 아름답고 성스러운 사랑 의 헌신을 낭비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옥함을 깨뜨린 여인과 제자들과 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사랑의 깊이에 있었습니다. 제자들 도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옥함을 깨뜨 린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까닭입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까닭에 예 수님의 그늘진 마음의 고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는 정작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바라 볼 때, 있는 그대로

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자 기가 보기 원하는 것만 찾아내어 보 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보기 위해 서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보게 됩니다. 잘 보기 위해 서는 초점을 잘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통찰력이란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한 고통스 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 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그들 자신의 야심에 집착했기 때문입니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고 말씀하시는 때에도 제자들은 누 가 더 크냐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습 니다(막 10:32-45). 하지만 옥함을 깨뜨린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옥함을 깨뜨려 비우듯이 자신을 비 웠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의 고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 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면 눈으로 보 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게 됩니 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의 깊은 고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옥함을 깨뜨린 여인의 사랑과 헌신 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변호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순절에 옥함을 깨뜨린 여인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 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 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닮아가 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과차 믿음



김 성 민 목사
펠리세이드교회

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 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예수님 의 기적과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는 옆으로 살짝 밀 어 놓고 내 마음에 믿기는 것을 골 라서 믿게 된다. 결국 하나님을 이 해하지 못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릴 수 있다. 성경 말 씀을 믿어야 한다.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며 고민 끝 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성경이 1600여 년 동안 40 여 명의 다른 시대와 다른 문화 가 운데 살던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 님의 인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 는 일임을 알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닿을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 을 통하여 확신하고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복음서를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 님의 많은 기적들을 대하면서 모과 차에 의식을 가지고 있던 나와 같은 마음으로는 그 말씀들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역사들을 보면 더 깊은 은혜의 자리 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의심부터 하고 사는 마음을 정리 하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마음 속 깊이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순 종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에 인생의 변화가 시작됨은 의심의 여 지가 없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 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 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 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 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마태복음 14 장 30-32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하셨다.

의심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예배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 문이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항상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다. 마 음을 열고 믿음으로 말씀을 늘 묵 상해야 한다. 그 말씀이 씨앗이 되 어 큰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되기 때문이다.

주님, 다른 아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어느 정도로 부자이면 천국에 가기 힘든가?



정 기 정 목사
샘물교회

들어가기 힘든니까? 백만장자, 억 만장자되면 부자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세상의 무엇인가로 부요하 면 그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그것이 꼭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부요하여 말 씀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풍성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어 떤 사람은 너무 착하게 살아서 ‘자 기 의’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용서 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하나도 없다 해도 다른 형태의 부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마음이 이 미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말씀하셨습니다. 부 자는 과연 천국과 거리가 먼 것인가 요? 과연 얼마나 부자이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문화적 배경에 서 해석하는 내용을 읽었는데 흥미 로웠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들 중에 ‘바늘귀’ 라는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과 같이 이 문은 성문치고는 너 무 초라하고 작아서 사람도 낙타에 서 내리고, 낙타도 모든 짐을 내려 서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기어 들 어가야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라고 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니 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이미 부요하여 바늘귀가 되시는 예수님 께 무릎 꿇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을 수 도 없고 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자이면 천국에

활성산소 제거?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환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라디칼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본 수소수기의 특징

-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카리 상태가 됩니다.
-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침탄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가즈미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수소수 무료/가용!
깨끗하고 건강한 물 트러쉬 오세요,
한국의 **리얼플러스 PLUS** 에서
생산된 우수안 제품입니다.

CTP 100
\$1,390 +Tax
- 1년 필터교체 무상
- 냉, 온수 수소수기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GSPH 100
\$2,990 +Tax
- 1년 필터교체 무상
- 냉, 온수 수소수기

수소 보틀(1병) 구입시
에네스티 핸드크림 2개 Free
(12월 상당 시은품)

공짜



■ 환원력이 뛰어난 수소가 생성되는 보틀

[제품특징]

*스테인레스 필터를 통해 입차, 티백, 천연차 등 다양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적정사용온도 : 친환경소재와 제품 변형 방지를 위해 -20도~100도 사이에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심플한 디자인, 친환경 트라이트탄 소재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휴대성으로 여행, 스포츠, 레저 등은 물론 일상에서도 편리합니다.

1병 \$95.00 \$65.00 +TAX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 (1병 Free)
\$267 +Tax



*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장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BAJA CALIFORNIA NATURAL SEA SALT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염전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의 특징

- 최적의 생산조건에서 생성된 순도 99.70%의 미네랄소금
- 중금속 0.001% 청정 천일염
- 간수 제거된 건강 천일염
- 다년간 생산과정을 거친 최상급 천일염
- KA-Kosher 인증 천일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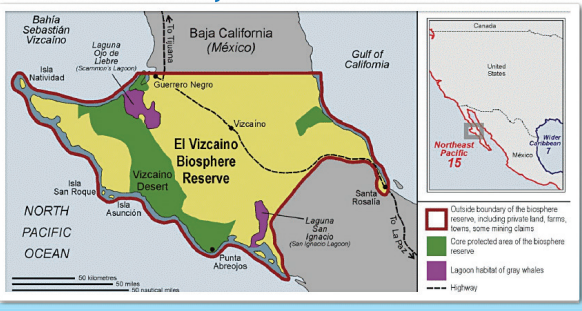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염전의 특징

- 청정해역에 위치한 깨끗한 구역
- 적은 강수량 (50mm/년)
- 강한 일조량 (2M/년)
- 년 평균 기온 (18~22°C)
- 강한 바람



성분분석 및 인증서
바하캘리포니아 천일염은 기존의 호수 수입 천일염 및 국내 천일염과 비교하여 천일염의 기능과 소비자의 선호도 또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 1봉지



www.bajacaliforniaseasalt.com

UNESCO's El Vizcaino Biosphere Reserve

건강한 피부의 시작
에네스티 화장품

enesti



이제 물에서도 당당하게!

Enesti UV/CUT SUN/BLOCK
에네스티 유브이 컷 썬블럭
워터프루프/자외선차단 기능성 화장품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
SPF 50+ PA+++ (40ml))
\$8.00 + tax

촉촉! 시어버터 핸드크림



PROTECTION FROM UVA, UVB WATERPROOF ANTI-SHINE EMULSION
Enesti 샤르르~ 시어버터 촉촉 매끈 핸드크림
초고보습 시어버터 함유 Softening and moisturizing
Net. wt. 50g
\$6.00 + tax

문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

다음세대 인터넷 이용자, 부모의 미디어 습관 영향 받아

가정과 교회에서 좋은 기독 콘텐츠 계속 공급해야

스마트폰 보급 확산, 인터넷 이용률 증가와 콘텐츠 다양화로 인터넷·스마트 미디어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과도한 미디어 사용은 심리, 관계·행동,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쳐 다양한 정보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에서도 이 현상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2006년부터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를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매년 시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 3월 27일 2016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발표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이른다. 현저성이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이고, 조절 실패란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이 감소하는 것이다.

문제적 결과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해서 이용하는 것이다.

◆과의존 위험군의 여전한 증가추세 계속돼
이 조사는 유·아동(만 3-9세), 청소년(만 10-19세), 성인(만 20-59

세), 60대(만 60-69세)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자를 모집단으로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과의존 위험군(고위험군+잠재적 위험군)은 17.8%로 전년(16.2%) 대비 1.6% 늘어났다. 다만 연령대별 세부 현황에서는 각각 다른 변화가 나타나 다양한 대응이 요구된다.

유·아동의 경우, 고위험군은 1.2%로 전년(1.7%) 대비 0.5% 감소했으나 잠재적 위험군이 16.7%로 전년(10.7%) 대비 6.0% 증가했다.

유·아동 고위험군은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는 부모에게 저항하며 일상생활의 상당 시간을 스마트폰 사용에 소비한다. 그래서 부모-자녀 갈등, 일상의 놀이·학습 문제, 건

강 문제 등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이다. 잠재적 위험군은 고위험군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스마트폰 과의존 가구별 현황에서는 부모가 위험군인 경우 유·아동과 청소년 자녀도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위험군인 유아동 자녀가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23.5%로, 부모가 일반 사용자군이면서 유아동 자녀는 위험군(17.3%)인 경우보다 높았다.

따라서 부모의 미디어 습관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가정에서 좋은 기독 콘텐츠 많이 보여줘야

현대인에게 미디어는 삶의 필수 요소이다. 특히 현재 어린이와 청소년은 인터넷에서 혼자 놀이와 생활 대부분을 한다.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지나친 중독 현상, 허위 사실에 기초한 여론 형성과 책임의 부재, 사이버 범죄 확대, 폭력에 대한 무감각 등 미디어의 폐해도 통제 불가능한 범위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무분별한 미디어 홍수 속에서 다음세대가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게 하려면, 위조 감별 훈련에서 진짜를 계속 보여주듯 가정과 교회에서 좋은 기독 콘텐츠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

이대웅 기자

“부목사들에게 ‘새벽기도 자유’ 선포했더니…”

“자유롭게 기도하는 기쁨 대신 기도하지 않는 자유 누리더라”

김병삼 목사(만나교회)가 지난 3월 27일 ‘자율적 새벽기도’에 대한 단상을 자신의 SNS에 남겼다.

그는 “오래 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에 심취했던 때가 있었는데 ‘기도가 당신에게 지루한 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는 문장이 아주 강하게 다가왔었다”며 “아마도 모든 크리스천이라면 ‘기도’에 대한 강박과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문을 열었다.

김 목사는 “대한민국에서 목회는 모든 목사들에게 ‘새벽기도’ 역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도가 노동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만나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새벽기도 자율과 자유’를 선포했었다. 목회자들에게 새벽에 나오는 시간이 강박이나 억압 규율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전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하는 기쁨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것’, 그래서 새벽 시간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다. 기도의 시간이 삶에서 기쁨과 필요, 그리고 갈급함이 되기까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김 목사는 “어제는 목회자들에게, 더 이상 새벽기도가 자율이 아닌 목회자로서의 ‘의무감’으로 참석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밤새 마음이 무거웠다”며 “새벽시간에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새벽기도가 지루한 노동이 될까봐”라고

언급했다.

김 목사는 “중세교회의 타락은 ‘영성’이 징벌적 개념으로 바뀌는 순간 아니었을까?”라며 “죄에 대한 보상으로 ‘기도의 형량’이 부과되기도 하고, 죄에 대한 보상으로 ‘선행과 고행’이 부과되기도 했으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우리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하고 감사했던 시간들이 징벌적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스스로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 아닐까?”라며 “요즘 나이 드는 중세가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이전에 목회 경험을 가지고 후배 목사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하거나 충고할 때가 많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저도 젊은 시절 부목사도, 개척교회도, 시골 목회도 했고 때로 다른 목회자들의 눈치도 보고, 교인들의 이목도 있고, 자신에 대한 규율의 수단으로 새벽기도를 했던 것 같다”며 “지금 생각해 보니 새벽에 나와서 참 많이 즐겼던 것 같고, 새벽에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참 많았다”고 회고했다.

김 목사는 “그 시절, 새벽기도는 기쁨과 설렘, 기대의 시간이 아니

라 의무감이 참 많이 짓누르고 있었다”며 “아마도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런 의무감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또 생각해 보니 그때 억지로라도 붙들고 있었던 기도의 끈이 나를 붙잡아 주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끈으로 인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절절하게 새벽에 기도했던 것 같다”며 “기도가 지루한 노동이 되지 않기 위해 기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순간, 기도의 기쁨과 기대가 날아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려했다.

김 목사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새벽을 사십시오!’로, 이는 꼭 시간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시간, 기도와 묵상과 사색, 그리고 목회의 준비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말한다”며 “어느 시간이나 가능하지만, 목회 패턴에서 보면 새벽처럼 좋은 시간이 없더라”고 고백했다.

김병삼 목사는 “어떤 면에서는 율법적이기는 하지만 새벽을 지키는 목회자를 교인들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며 “오늘 새벽 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에게 기도가 노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을 지켰던 그 자리의 습관들이 정말 필요한 순간의 하나님을 붙드는 끈이 되기를 바랍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대웅 기자

대학가 이단, 기독교 동아리 회장돼

교회언론회, 모 대학신문 기사 사례로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대학 캠퍼스에 퍼지는 이단 세력들: 한 번 잘못 빠지면 평생 후유증 된다’는 논평을 4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모 대학신문에 게재된 한 이단·사이비 동아리 관련 기사를 소개하면서 “대학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소개된 침투 사례를 보면, 첫째는 운동(탁구, 바둑 등) 동아리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온 학생들을 유인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기독 동아리를 가장해 그 단체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단 사이비를 포교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학교 내 동아리 전체(동아리연합회 등)를 장악해 운영권을 갖고, 기존 기독 동아리들을 제명하는 식으로 기독 동아리는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네 번째 방법은 체육 동아리를 만들어 구성원(이단·사이비 신봉자)들이 신규 가입 학생들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대학본부 산하 봉사팀에 들어와 다른 학생들을 포교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기독교 동아리에 침투해 회장이 되어, 그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렇듯 이단·사이비는 순수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까지 침투해 자신들의 종교적 목적을 이루려 혈안이 돼 있다”며 “건전하고 건강해야 할 학생들의 캠퍼스까지, 온갖 방법을 통해 접근하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고 지적했다.

또 “이단·사이비가 이렇게 학교 동아리를 노릴 경우,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은 자발적인 모임으로 기쁘고 보람이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학생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될 뿐”이라며 “자칫 하면 꿈과 비전을 품고 들어간 학교 생활이 상처와 아픔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교회언론회는 “이에 대해 학교 당국과 미션스쿨 교목실에서 철저히 이단·사이비 동아리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미션스쿨 아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전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선량한 학생들이 이단·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잘못된 이단·사이비에 한 번 빠지면, 마치 마약과 같이 평생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단·사이비의 특색은 기존 기독교와 종교를 부정하고, 특정 개인을 우상화·신격화하며, 새로운 성경공부가 있다고 유혹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점”이라며 “한국교회도 각 지역 대학교들과 공동 전선을 펼쳐, 대학 내 이단·사이비의 발호(跋扈)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려면 이단·사이비의 특색과 문제점, 단체들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고, 동아리 연합을 통해 이단·사이비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대웅 기자

〈샌퍼난도 밸리 한인교회 교역자협의회〉주최

2017년 연합 부활절 새벽예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참된 의미를 말씀과 찬양으로 오늘에 되새기며, 밸리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는 연합예배에 밸리 성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2017년 4월 16일(주일) 새벽 5시 30분
장소 : 밸리연합감리교회 (류재덕 목사 시무)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전화 : T. (818)366-0089

<밸리 한인교회 교역자협의회> 2017년 임원

회 장 : 문일명 목사 (PPC장로교회)	서 기 : 하모세 목사 (고백하는 교회)
부회장 : 서오석 목사 (나성평화교회)	회 계 : 나형길 목사 (그이름교회)
총 무 : 김선일 목사 (남가주마라톤교회)	장학부장 : 김인식 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샌퍼난도 밸리지역 한인교회 교역자 협의회

회장 문일명 목사 연락처 : 총무 김선일 목사 T. (818) 200-8100



설명회에서 대표대회장 이성희 목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부활절연합예배 통해 한국사회에 희망을

2017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설명회 개최

2017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설명회가 3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017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는 부활절인 4월 16일 오후 4시 '생명의 부활 민족의 희망(요 8:12)'이라는 주제로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원로 김삼환 목사)에서 개최된다.

모두발언에 나선 대표대회장 이성희 예장 통합 총회장은 "교회력에 따르면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의미 있는 절기로, 부활절연합예배를 통해 한국교회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혼란에 빠진 한국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완전한 조직은 아니지만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회)과 함께 각 교단 총무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예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질문 시간에 부활절과 겹친 세월호 3주기에 대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다른 요소가 들어가도 되는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순서가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 총회장은 "특별기도 중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기도도 들어갈 것이라 생각한다.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미수습자 9명 중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신데, 이들을 뵈 일곱 가족이 크리스천이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위로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성희 총회장은 "부활절 전 교단장회의가 한 번 남았는데,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장소가 교회여서 시설 비용 등이 많이 들지 않고, 순서자들 사례도 당연히 없기 때문에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대웅 기자

준비위원장 김창수 예장 합동 총무는 "각 교단 총무들이 한 마음으로 화합을 이루기 위해 여러 교단장들을 모시고 예배드리려 한다"며 "작년에 이어 교회당에서 드리게 되는 것은, 보여주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드러지는 부활절연합예배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 총무는 "이성희 총회장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며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이 열납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구자우 예장 고신 총무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순서를 강화했고, 예배 중 복잡하거나 시간 끄는 요소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심플하고 깊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했다"며 "순서편성에서는 그 동안 많이 참여하지 못했던, 규모가 크지 않은 교단들과 NCKK 가입 교단들을 집중 배치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단장들은 모두 참석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잠정안에 따르면, 부활절 연합예배에서는 사회를 김선규 예장 합동 총회장, 설교를 이영훈 기하성(여의도) 총회장 겸 한기총 대표회장, 축도를 전명구 감리회 감독회장 등이 맡는다.

이후 특별기도는 이종승 예장 대신(백석) 총회장 사회로 최철용 예장 합신 총회장, 권오륜 기장 총회장, 이승헌 예장 개혁신총회장, 여성삼 기성 총회장 등이 인도하며, 파송 기도는 이양호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이 맡았다. 성찬식은 각 지역별 새벽 부활절연합예배에서 실시하는 만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설명회에서는 부활절 영상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됐다. 공모전 결과 대상 없이 우수상에 조해진 집사(서울침례교회)가 수상했다.

이대웅 기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겸손한 차기 지도자 세워지길”

한기총,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관련 논평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관련 논평을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인용으로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뒤, 3월 31일 범죄 혐의로 인해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일어난 비극이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한기총은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원칙과 공정성, 형평성 등이 고려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존중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되는 역사의 현장에 함께 서 있는 국민들의 심정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리되어 상호 협력과 견제 속에 발전해 간다"며 "견제가 적절하게 되었더라면,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이제껏 대통령의 제왕적 구조가 강했기 때문에 견제를 하지 못했다면, 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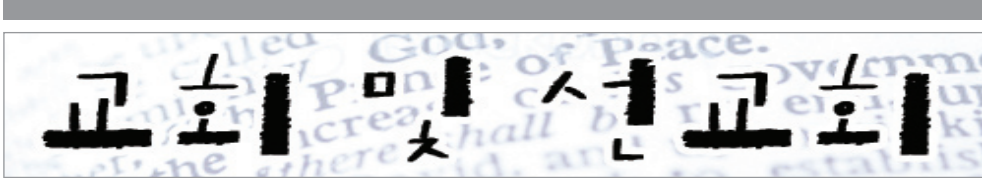
한 구조적 변화를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대선이라는 시간적 한계에 갇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같은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문제"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촉구한 것.

한기총은 "대통령 파면과 구속이라는 시대적 혼란 속에서도 동요함 없이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민들의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것만으로도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닌,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임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알고 이를 고쳐나가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기총은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허히 국민들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정의구현과 소외된 자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겸손한 일꾼이 세워지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O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바질종학교 / 토요새벽-17와비몬트코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사를 척척잡고, 이단기정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 (818) 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 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예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O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32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생명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담아가는 교회, 영적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O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천왕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일복간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7-3009 C. (213) 215-8523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에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u@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몸,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학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초를 소, 천 초 정신의 초를, 바른교회관의 초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령과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주일침사예배: 주일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주일침사예배: 주일 2부 오전 11:00 새연약한국교회 토요일 오전 9:30
수요큐티모임: 저녁 7:00 교회학교(Child Youth): 매주 주일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저녁 8:00

강영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 434-1083 www.new2011.org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일성경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 S. Rosemead Blvd., Pasadena, CA 91107
T. (626) 872-2405 교회, (503) 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알렘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9시 (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 Q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일 오전 10:30 EM 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일성경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보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일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철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세교구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권오국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 해방 기도회 오전 5:30 (월-금)
E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일메가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2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조종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월드비전 운영위원회가 월드비전 미주본부에 성금을 전달했다.

살 곳 잃은 시리아 난민 어린이에게 한인들 사랑 전달

지난 27일(월) 애틀랜타 월드비전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말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활동'을 통해 모은 성금 2만 6천 달러를 월드비전 미주본부에 전달했다.

이에 본부측은 애틀랜타를 방문해, 모금활동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실로암한인교회, 샘물장로교회, 중앙장로교회, 하나장로교회, 예수소망교회 등 5개 교회에 감사패를, 오대기(연합장로교회), 심우철(연합장로교회), 지정만 장로(연합장로교회), 전병국 권사(애틀랜타한인교회), 김춘경 집사(베다니감리교회) 등 운영위원들에게 각각 감사장을 전달했다.

신유일 운영위원장은 “작년 12월 이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난민동기에 여러 애틀랜타 지역 한인교회들이 많이 동참해줘서 감사하다. 성금 액수도 중요하지만 시리아 난민 어린이처럼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눈길을 돌려 사랑 나눔에 힘을 모아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월드비전 크리스토퍼 전 미주한인 총책임자는 “시리아 전쟁이 시작된 지 6년인데, 아직도 상황은 어렵다. 갈 곳 없는 7백만의 난민 중 절반이 어린이이다. 월드비전은 이 아이들을 위해 식량, 학업, 물품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에 애틀랜타 지역교회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병철 목사(중앙교회 담임)는 “한국과 인연이 깊은 월드비전의 사역을 지원할 수 있어 더 의미가 있었다. 이런 경험들을 발전시켜 지역교회와 한인사회가 협력해 지속적인 사역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월드비전 애틀랜타 운영위원회는 지난 2013년 ‘캄보디아 사랑의 가방 보내기’, 2014년 ‘에티오피아 우물가기’ 캠페인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작년 말 시리아 난민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교단을 떠나 모든 교인과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사랑을 전했다.

윤수영 기자



제1기 시니어 사역자 훈련학교가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시니어 사역 노하우, 미주 곳곳에 전했다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가 ‘제1기 시니어 사역자 훈련학교’를 지난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지아 주와 타주를 비롯해 캐나다, 일본 등 34개 교회에서 85명의 목사, 사모, 전도사, 그리고 장로 등 평신도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의 50%는 40대 목회자로, 시니어 사역을 준비하는 젊은 목회자들로 구성됐다.

교회 측은 “시니어 사역에 대한 한인교회들의 관심이 높다. 기존의 시니어 사역은 돌봄과 섬김이 대부분이었다. 이제는 65세 이상의 시니어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시니어 라이프에 대한 이해, 영성으로 깊어지는 시니어, 건강하고 활동적인 시니어, 전도하고 선교하는 시니어, 차세대를 세우는 시니어 등 시니어 사역

에 대한 9개의 강의와 2개의 특강(애틀랜타중앙교회 한병철 목사, 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 조현성 교수), 시니어 사역 사례 안내, 교회 투어, 행복대학 참관, 수료식 등으로 진행됐다.

시니어 사역 담당 김재홍 목사는 “각 교회들이 증가하는 시니어 교인들을 위해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제 시니어 사역은 인생 후반전에 계신 분들을 안주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연합교회가 지난 10년간 실시해온 사역의 경험과 프로그램을 토대로 이번 훈련학교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사역사례 안내는 기획단계에서 실제 사례까지 전도, 선교, 제자양육, 멘토링, 레크레이션 등 지난 10여년간 연합교회에서 실시했던 각종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윤수영 기자

내 바람 아닌 하나님의 뜻 따라

화평장로교회(담임 김용환 목사)가 지난 24일(금)부터 26일(주일)까지 모퉁이돌선교회 대표 이삭 목사를 초청해 선교 부흥회를 개최했다.

모퉁이돌선교회는 1983년 결성된 단체로, 중국과 북한 등 공산주의 지역에 성경을 보급하며 복음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매월 〈카타콤〉이라는 선교잡지를 통해 선교사역 소식을 전하고 있다.

김용환 목사는 “고등학교 때 이삭 목사가 발간한 카타콤이라는 소식지를 본 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집회를 통해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이삭 목사는 “어머니는 17세가 된 나에게 ‘얘야,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에 갈 수 있니?’라고 물으셨다. ‘못 가요. 어머니!’라고 대답했더니 ‘그럼 일단 미국부터 가라. 미국 시민권을 받

으면 너도 북한에 갈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돈 한 톨 없는 집안에서 미국은 어떻게 가고, 시민권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지만 모친의 권유로 목회자의 소명과 함께 북한 선교를 꿈꾸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평양 가면 절대 돌아오지 마라. 거기서 죽어. 거기서 묻히라’고 하신 어머니의 당부가 평생 소명이 되었고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현실은 힘들었으나,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뤄질 때, 기도가 응답 받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면 망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영 기자



J. D. 그리어 목사

모든 이들에게 천국 아닌 지옥 예정

미국 유명 목회자인 J. D. 그리어 목사 주장

미국의 한 유명 목회자가 “모든 이들에게 천국이 아닌 지옥이 예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에 소재한 서밋교회(The Summit Church) J. D. 그리어(Greer) 목사는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모든 이들에게 예정돼 있는 운명”이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존재로 지으셨지만, 인류의 반역 때문에 지옥이 예정됐다. 이 반역에 우리가 지금도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침례회 출신의 그리어 목사는 “정말 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이들에게도 지옥이 예정돼 있다”면서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예하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계 21:8)라는 말씀을 인용했다.

그리어 목사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구들 앞에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본 적이 없는 자들을 의미한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마음과 물질로 순종할 만큼 제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한다. 우상숭배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이들이며, 거짓말하는 자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진실되지 않은 이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불과 타는 유황과 영원한 죽음’이 있는 곳으로 묘사된 지옥에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은 지옥이 문자 그대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옥이 상징이라고 해도, 지옥이 가르키는 바는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은 영원한 곳으로 가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말이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퓨리서치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지옥보다 천국을 믿는 미국인들이 더 많았다. 천국을 믿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의 72%, 지옥을 믿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58%였다. 또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 기독교인들은 천국과 지옥이 둘 다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았다.

강혜진 기자

미얀마의 수십만 기독교인 정부 박해 피해 말레이시아 行

미얀마 기독교인 수십만 명이 정부의 장기간 박해를 피해서 집을 떠나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이가 터키 국영방송 TRT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기독교인들은 인종적·종교적 소수자로서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 왔으며, 수많은 미얀마 기독교인들이 말레이시아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한 미얀마 기독교인은 TRT와의 인터뷰에서 “미얀마는 안전하지 않다. 정부군은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거나 감옥에 보낸다”고 밝혔다.

1948년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미얀마 정부는 소수 인종들을 미얀마의 주류 문화에 편입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왔으나,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항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소수 민족들과 정부군 사이의 분쟁이 격렬해지자 많은 기독교인들

과 비불교도인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미얀마 동부 국경 지역에서는 카렌-카친산-친 등 소수민족이 독립을 주장하며 정부군과 무장투쟁을 진행 중이고, 현재 14개 소수민족 중 카렌족이 정부와 휴전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산발적인 전투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군의 공격과 별도로 미얀마의 기독교인들은 근본주의 불교도들의 박해에도 노출돼 있다.

오픈도어즈에 따르면, 불교도들은 ‘종족 및 종교 보호법’을 발의하는데 성공했다. 이 법안은 타종교로의 개종 및 타종교인과의 결혼을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얀마의 현재 인구는 약 5,480만 명이며 중국, 대만,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대략 440만 명으로 추산된다.

강혜진 기자

“아내 외 이성과 단둘이 식사도 안 해”

최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아내를 제외한 다른 여자와 단둘이 식사도 하지 않는다”고 했던 과거 발언이 화제가 됐다. 그를 옹호하는 이들은 배우자에게 충실해지려는 그의 노력에 찬사를 보냈지만, 여성차별적인 발언이라며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다.

릴리전뉴스(RNS)는 2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이같은 태도는 ‘빌리 그레함 원칙’(Billy Graham’s Rule)을 따르는, 많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면서 빌리 그레함 원칙을 주목했다. 빌리 그레함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한다. 둘째, 성적인 타락은 그 걸도양도 취하지 않는다. 셋째, 다른 목회자나 교회들을 상대로 한 비난을 삼간다. 넷째, 모든 이들을 힘써 정직하게 대한다.

이는 1940년 발표된 ‘모데스토 매니페스토’(도덕헌장)의 일부로, 미국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도덕 생활에 하나의

모범이 되어 왔다.

20년 동안 기독교 음악 사업을 해 온 대런 타이러(Darren Tyler)도 이같은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는 “이러한 경계선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아내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많은 정치인이나 목회자들이 성추문에 휘말리거나 잘못된 인상을 주거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이성 간에는 일대일로 만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원칙이 사회나 교계에서 경력을 쌓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큰 장벽 중 하나로 부각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시사평론가 엘리자베스 스카이어는 “펜스 부통령이 여성과 식사를 피한다면, 어떤 여성이 수석 부좌관이나 선거 사무장 등의 지위에 오를 수 있겠는가?”라며 따져 묻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를 이루는 성공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발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0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 363-5887

최 혁 담임목사


주안 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 C. / 엘 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대학생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아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 (562) 691-0691 F. (562) 691-0698 / nachimbun.org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주일 3부예배(영아) 1:30 PM
금요찬양예배 7:30 P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원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cfcg.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허귀암 담임목사


놀웁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562) 802-4959 C. (714) 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번씩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_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 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00
토요일학교, 엑스포스쿨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C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염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림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6: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성경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 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 217-5558

주일 성미이 예배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www.sellacare.com

Congratulations!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샵 **입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샵 **입점**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심장, 뇌 혈전 용해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품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싶다면 **혈액순환, 혈관건강**부터 지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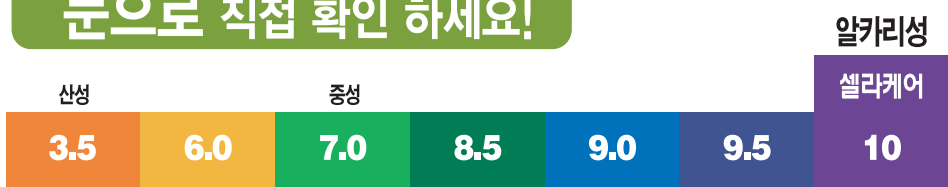
- 혈 관 성 치매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식품 섭취하여 혈관성 치매 예방
- 뇌 졸 증 기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하고 섭취함으로써 뇌출혈 예방
- 동맥경화 평소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복용하여 신체의 혈관청소에 도움 줘야
- 고지혈증 음주를 자제하고 수영, 등산 등 운동과 함께 혈액혈관 영양제 복용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

- ✓ **100% Organic** (유기농)
-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 **All Natural** (순수천연)

-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 5 소비자의 재구매 확률이 높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셀라케어 제품은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의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현대약국 (웨스턴+5가)	213.480.3322	세리토스 파이오니아약국	562.402.6972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다운타운 산페드로	213.765.9677	LA시온마켓 엄마손약국	213.739.303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얼바인	949.330.9009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뉴서울호텔 (팔팔)	213.386.531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국제건강가족동호회	213.382.9714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텍사스 (Nature's Gift)	972.280.9006
시온약국	213.344.973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웁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발보아 약국	818.831.2090	로렌하이츠	626.912.5727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그린랜드 건강헬스(그린마켓 내)	626.839.2868	하와이 (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부에나파크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캐나다	604.872.166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든그로브 만미당약	714.333.7866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가든그로브 한성한의원	714.638.5100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세리토스 패밀리약국	562.402.0500				
LA 5가버지 그랜드약국	213.380.5103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한국총판 010.6503.0191

서울혜화동 서울대병원 본원내 02.2072.1579 / 암센터내 02.2072.7565

서울고대 안암병원내 2층 02.928.9580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내 031.719.9589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28)

터지는 생명수를 묵상하는 텔 단

성경에서 단이라 불렀던 땅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할할 때 단 지파는 블레셋 평야 부분(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아알론, 에그론, 읍바, 맞은편 경계)을 할당받았지만 당시 우수한 철기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결국 단 지파는 블레셋에 패하여 할당받은 지역에 주거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북쪽으로 90마일 이상 올라간 당시에 레센(삿18:29)이라 불리던 이곳을 점령하여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 하였다.(수19:40-48) 사사기에는 단 지파의 라이스(레센) 지역의 점령 장면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삿18:11-29) 단 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출발하여 기앗여아림을 거쳐 미가의 집에 이른 후 라이스 땅에 대한 탐지 소식을 접한다.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편안한 백성을 만나 칼로 치고 불로 그 성읍을 사른 다음 단 자손은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있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 금송아지 제단이 단 자손의

신상 위에 다시 세워진다. 처음부터 단 자손은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결국 이러한 우상 숭배는 북이스라엘을 앗수르의 말 밭굽아래 놓이게 만들고 BC722년 앗수르에 의해 철저히 나라가 파괴된다. 지금 단에 가면 고대 가나안 시대의 성벽의 모습을 볼 수 있고(BC2700-2400),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았다는 금송아지 제단의 기초를 볼 수 있다.(BC930)

고고학이 말하고 있는 텔 다

“텔 단”은 언덕을 말한다. 텔은 언덕이고 단은 지명이다. 고대 사회에 도시의 흥망에 따라서 옛 도시 위에 새 도시가 건설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형성된 언덕을 텔이라고 부른다. 고대 폐허의 무더기 즉 토총을 의미한다.

텔 단은 가나안 시대부터 북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유적이 있는 곳이다. 텔 단의 첫 발굴은 1966년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지금 보이는 성문과 벽돌 그리고 북이스라엘 시대에 세워진 금송아지 제단을 발굴하였다. 이곳에서 가나안 시대의 도자기들이 발견되었다. 단 지파가 오기 전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인 셈이다. 1993년 7월 21일 히브리대학 고고

학 발굴팀이 텔 단의 성문 밖에서 돌담을 파헤치던 중 돌 조각 하나를 발견하였다. 이 조각에는 히브리어와 모양이 비슷한 아람어로 된 글이 새겨져 있었다. 길이 32cm 폭22cm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크기의 조각에는 13줄이 기록되어 있었다. 전체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람의 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고 정복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것은 서기전 9세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세력 다툼 속에 유다 왕 아사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북이스라엘을 징벌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공을 바치었다는 기록이다.

텔 단은 자연 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텔 단에 들어서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단 샘과 레넌 샘(에넌가든)에서 솟구치는 샘물은 상류 요단강의 근원이 되며, 엄청나게 쏟아지는 물의 양은 측량할 수가 없다.

생명수 넘치는 아름다운 곳

북이스라엘 시대의 단은 금송아지 제단이 있어 생명이 희생되는 곳이었지만 현대의 단은 생명이 터지고 분출하는 시원한 모습으로 장관이 아닐 수 없다. 네게브 광야와 유다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은 단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들을 보며 이곳이야말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동안에 광야의 메마름만 보아온 사람들에게는 물이 솟구치는 모습만 보아도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단에서 발원하는 샘물은 상류 요단강이 되어 갈릴리 바다를 거쳐 하류 요단강을 통해 연해에 이른다. 이스라엘에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상시천이자 생명의 젖줄인 셈이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경계를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로 하였다(삿20:1, 삼상3:20). 광야인 브엘세바에서 물이 터지는 샘물의 근원지인 단까지는 17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결국 단에서 시작한 생명의 물이 브엘세바까지 적시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단에서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하지 않고 브엘세바로 내려갔을까?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동안 물을 찾아다니다 끝난

인생이었다. 거의 1백년을 물 근원을 찾아다닌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단에 대하여 물랐단 말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북쪽 사람이라 북쪽 지역 환경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럼 왜 많은 물이 있는 단을 내버려 두고 물이 없는 브엘세바 근방에서 일생을 살았고 그 자녀 이삭과 야곱도 역시 그 뒤를 이어 물이 없는 곳만 찾아다녔나? 구약을 대표하는 3대 족장은 약속만 가지고 살았지만 신구약을 대표하는 예수님은 물을 찾으러 광야에 다닐 필요가 없다. 그 자신이 생명의 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단의 물은 마르지 않고 그 길고 깊은 건기에도 계속하여 흘러내리고 우기가 시작되면 더욱 많은 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된다. 이 물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된다. 단의 물이 이스라엘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면 복음의 물결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소생시키는 생명의 물이다. 거침없이 복음의 물결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흐르기를 기대하며 단 숲의 길을 따라 오늘도 걸어본다.

〈계속〉



단에서 샘솟는 물의 모습과 북이스라엘 시대 금송아지 제단



2017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건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증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인증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미성대학

- ▶ ABAC 인증, ATS 공인학위
- ▶ 기독교 경신대, 동원대학교(미국), 성명대학교(미국), 신학교육사, ESL, TESOL
- ▶ 연방정부 승인 SEVIS-I-20 지원 가능
- ▶ 안수후 4주 미만의 한국에서 사역 가능
- ▶ 동원대학비사 과정 신설
- ▶ 입학상담: 김소은 TEL 213(241)-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강병래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 943-0301 / Fax (323) 943-5032
www.aeu.edu/info@aeu.edu aeu@aeu.edu aeu@aeu.edu aeu@aeu.edu

충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형에어컨으로의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종교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득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 386-0300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석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 대학교**

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2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학(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신학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
 교정학 박사(D.CJ)를 포함한 6개 학사, 2개 석사, 1개 박사
 학위를 수여하며, LA Teaching Site 운영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 952-0088(내선), 515-5885(일락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학자

한의원 **Zo'e 조애**

Tel: (213) 718-8275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 (8th & Lake St.) (일수로 예약 필수)

2017 CD PRINTING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람,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패키지** (표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다자간Free)

160 (다자간 포함) \$160
A형 스탠드배너 \$140
Stand X-Banner \$65
Retractable Banner \$140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메디케어 올해 65세 되셨습니까?
메디케어 신규보험 가입 & 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Part C)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케어 섹트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문의 상담 **213-321-0302 Connie Kim (김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 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월 \$10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213.392.2323

왕만두 팔짱빵 부추교자 김치교자
(10개 \$10) (50개 \$20)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목, 발목 질환}
✓ 발가락
✓ 마디관절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개월 \$60

배 빠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도모어)
영업시간: 월~금: 10시~5시 / 토 10시~2시

수소수
물이 미치는 우리의 건강

건강세미나
세계 3대 샘물 프랑스의 “루르드 샘물”, 독일의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의 “트라코테 샘물”의 특징은 많은 양의 수소를 갖고 있는 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을 알고 제거해 주면 건강하고 유쾌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한 물을 드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세미나에 오셔서 유익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제 우리 몸의 70%가 물, 어떤 물을 마셔야 하나?
대상 건강한 물에 관심 있으신 분 모두 환영
일시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기독교일보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참가비 무료(참석자에게는 천연미네랄이 풍부한 **미네랄 소금(\$20불 상당)** 1봉지씩 드립니다.)

주최: PRO-Z USA, Inc. 문의: Tel(213)434-1170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 전화로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약에서 길을 찾다' 에세이 공모전 대상작

이스라엘신학 정립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관하여(2)

지난해 10월 기독교일보가 주최하고 UBM교회가 주관해 열린 '구약에서 길을 찾다' 에세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최재환 학생(게이트웨이신학교 M.Div.)의 글 <이스라엘신학 정립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관하여>를 네 번에 걸쳐 연재합니다.
- 편집자 주

이스라엘신학의 필요성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야웨의 특별한 파트너로서 이스라엘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성경 안에서 살펴보자. 구약의 몇몇 전승들 안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소명과 목표의 일부로서, 세상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다음의 세 본문은 이스라엘이 모든 세계의 운운과 복리를 위한 신학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첫째, 시내산 만남의 자리에서, 야웨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 “정말로 온 땅이 내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출 19:5-6).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소명이 전달된 것이다. “제사장 왕국”이란 이 표현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서도 정확히 규명되고 있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하지만, 문맥을 고려하여 예측할 때 아마도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을 위해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다른 나라들의 복리를 위한 “중재자”이자 “중보자”로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땅의 모든 나라들 역시 야웨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야웨 하나님은 “온 땅이 나의 것”이라고 확실히 선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은 세상 속에서 복리와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역할과 함께 궁극적으로 야웨와 모든 나라들 간의 참된 교제를 가능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아브라함의 이야기 즉, 창세기 3-11장의 이야기들을 통해 먼저 세상이 야웨의 신실하신 피조물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피조세계가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저주의 세계가 되게 된 방식에 대한 신속한 서술 이후에 갑자기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한스발터 볼프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 이것은 세상의 반역에 대한 야웨의 반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한 야웨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창세기 안의 이야기 속에서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은 세상의 위기, 즉 온 나라가 야웨의 주권 가운데 계시는 세상 속에서 따라야 할 자신들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위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존재의 한 이유는 온 피조세계가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 아래 놓여있기 때문이며,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야웨는 세상이 복을 받아야 한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삶은 세상의 회복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다.

셋째, 만국에 대한 회복의 전달자로서의 이스라엘이란 주장과 관련해서, 야곱기사를 말하고자 한다. 야곱의 국무총리 요셉의 아버지이며, 복의 전달자인 늙은 노인 야곱은 마침내 당시의 만국을 상징하는 바로 왕과 직접 대면하게 된다. 이 기사에서 야곱은 탄원하는 자였고, 바로는 나누어줄 자원들을 갖고 있는 자로 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야곱 기사는 이런 관계를 간결하게 역전하며 늙고 힘 없는 야곱이 만국의 왕 바로를 축복하게 된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창4:7,10)” 결론적으로, 바로는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생성력 있는 삶의 능력의 수혜자였고, 이 능력은 야곱에 의해 표현되고, 요셉에 의해 실행된 삶의 능력이었다. 비슷한 예로, 출애굽기 12장 29-32절을 살펴보면, 주인이었던 바로 왕과 노예 모세 사이의 일반적인 힘의 배열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를 볼 수 있다.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나의 백성들로부터 떠나거라! 내가 말한 대로, 가서 야웨께 경배하라. 내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떼를 취하여 가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출 12:32)” 지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속이려고 해왔던 바로는 이제 자신이 완전 고갈된 자가 되어버렸고 오히려 노예 모세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55장의 본문을 살펴보자. “내가 너를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었고, 열방들에게 빛으로 주었으니, 이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사 42:6). 야



최재환 학생
게이트웨이신학교
M.Div. 과정

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사 49:6)” 이 본문에 따른 야웨에 대한 이스라엘의 의무는 만국들에 대한 하나의 책임으로 제시되고 있다. 포로기의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임무는 확정되어서 온 인간 세계를 야웨의 주권과 관심의 대상과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백성의 인약과 열방의 빛”이란 두 표현은 일반적으로 야웨 통치의 좋은 소식을 이방 세계에 알림으로써 그 결과, 이방 세계 역시 구출되어 구원받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비유대국가들의 복리까지도 이스라엘의 삶과 사역에 맡겨져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신학이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구원 계획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파트너이자 대리자로서 세상 속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정립하고 알려주는 도구인 것이다. 그리고 그 도구로서의 역할이 신약의 시대의 도래로 인해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은 영원한 약속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땅을 가진 한 나라로서 독립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때가 점점 차고 있으며, 대체신학의 문제점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역사의 흐름 등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보아선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신학이란 개인적인 구원에 더 많이 치중해 있는 현대 교회 신앙과 신학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다. 구약의 역할을 신약의 완성을 돕기 위한 축소된 역할로서의 도구로 인식되는 풍토는 이제 그만 지양되어야 할 요소로 보인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약속

을 성취하고 궁극적인 하나님 계획의 완성을 이룬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중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전세계 기독교 신학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란 원래의 틀 안에서 기독교를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란 진리를 넘어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도래가 아니라 야웨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신학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특별한 파트너로서 이스라엘이 수행했던 그 역사적 증언들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자신의 회복을 도모하고 또한,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 받은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신학으로 인한 유용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들어냈고 그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언약이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나 두 가지 종류를 포함해 왔다. 하나는 야웨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신실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자신들의 내적인 삶을 경건하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밖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야웨 하나님과 관련하여 그들의 삶을 새롭게 구성하라는 임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나아가 열방에게도 그들이 받은 복을 전달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항상 두 청중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제 1공동체로 보았을 때, 제 2의 공동체는 이스라엘을 통해 수혜를 받게 되는 열방인 것이다. 열방은 야웨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토라에 기초한 제 1공동체 이스라엘에 초대함을 받게 되는 자들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편 96편 10절에 나타나는 “복음”의 의미는 “열방들”을 향한 구원의 복

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흐름 안에서 실행되어지도록 의도되었다. 이 약속들의 핵심은 평화, 정의, 안정, 풍요와 관련되어 있다. 야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이예언적 약속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이 약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 구현은 파트너인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성경 안에서 살펴해보도록 하자.

첫째, 창세기 12:1-3은 모든 민족이 받을 복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야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인류를 위한 복을 의미하며, 이러한 목적 안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을 다스리거나 압제하고 또 그들을 쫓아내거나 그들을 진멸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했었고,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중재해야 하는 역할도 수행했어야 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중재했고(창 18장),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조상들을 위해 중재했다(창 19:37).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땅의 선택권을 위임 받았으며(창 13장),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과 이삭은 “계약”을 체결하고 평화롭게 공존했다(창 26:38-31). 아람/시리아 사람인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창 30:27). 야곱과 에서는 화해했고(창 33:1), 이집트는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았다(창 41:49,57).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장들과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블레셋, 이집트, 헤브론의 헷 족속(창 23장) 등이다.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유랑자로 살고 있는 각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에서 아브라함의 민족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은 근본적인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선교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세계를 이전의 애연 동산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1-3절은 모든 이스라엘인의 시초론 중의 시초론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서 일으키실 구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전 인류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계속>

주님미디어 새해맞이 이벤트

2017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패키지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인기 상품 A형 스탠드배너

Stand X-Banner \$65
거치대포함
*사이트에서 샘플선택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2017 NEW YEAR EVENT

말씀 액자

\$35 16x16inch 기준

*주님미디어에서 직접 쓴 손글씨로 제작된 말씀액자입니다. 주님미디어에서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물티슈
주보제작
머그컵&텀블러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동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도서

말씀 그대로 예배하라

지용훈 | 규장 | 280쪽

20년 간 2,500구절의 성경을 암송하며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거리 전도로 선교했던 저자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초대교회 예배의 진정한 본질이 한 명의 설교와 경배와 찬양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어떤 형식이나 꾸밈 대신, 말씀 그대로 예배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다고 한다.



질문있어요

스티브 맥베이 | 김소희 역 | 터치북스 | 296쪽

매너리즘과 율법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에게 평안과 도전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보다 우리가 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종교적 습성에서 벗어날 것 등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는 진리를 강조한다. 2012년 출간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의 개정판.



광야의 소리, 윤종하

편집부 엮음 | 성서유니온 | 3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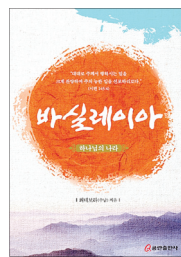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초대 간사로서 평생 문서사역에 헌신했던 윤종하 장로(에스라성경연구원 초대 원장)의 10주기를 맞아 손봉호, 손희영, 박은조 등 그를 추모하는 인사들이 함께 그를 기념한 책. 평신도로서 성장주의와 기복주의에 물든 한국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일깨우기 위해 처음으로 성경묵상(QT)을 소개하고 <매일성경>을 만들어 보급한 인물이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최대보라 | 쿰란 | 297쪽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확장되어 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나라로 계속되고 있다. 저자는 학교 교사, 목회자의 아내, 선교사, 목사로서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한국에서, 뉴질랜드에서, 인도네시아와 미국에서 사역한 저자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주 예수님의 일하심을 생생히 나타내고 있다.



REVIEW

팔레스타인 농부 입장에서 바라본 예수님의 비유

케네스 베일리(Kenneth Bailey)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는 「Poet & Peasant」의 번역서로, 이전에 <시인과 농부>로 번역됐던 책이다. 저자 베일리 박사는 부친이 아프리카 지역 선교사로 가서서,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등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본인도 선교사가 됐다. 그는 중동에서의 오랜 생활을 바탕으로 '신약성경을 중동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존 서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왔던 것을 탈피하여, 신약성경이 쓰여지고 읽혀졌던 당시의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 그 문맥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의 원래 메시지를

더욱 명확하게 읽을 수 있다고 말한다. 중동에서의 오랜 경험은 그의 주장이 단순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명제로 머물지 않게 해 준다. 성경의 본문을 더욱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여러 책 중 「Poet & Peasant」은 베일리 박사를 세상에 알린 책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누가복음의 비유 중 네 개의 본문을 택해, 팔레스타인 농부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중동의 농촌 문화와 더불어 이러한 비유들의 문학적 양식을 면밀하게 분석, 비유들이 가진 핵심적인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많은 논란과 다양한 견해가 있는 누가복음 16장 1-8절 '불의한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
케네스 E. 베일리 | 오광만 역
이레서원 | 400쪽

청지기 비유'를 문화적이고 문학적인 자신의 해석학적 틀로 명쾌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이 책의 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1부는 방법론의 문제를 다룬다. 2부는 1부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가지고, 누가복음 예루살렘 여행 기사 속 비유 네 편과 시 두 편을 분석한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1부에서 제시한 방법론이다. 베일리 박사가 비유 연구에 사용한 해석방법론은 '동양식 주해'다.

이 방법론의 핵심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중동의 농경문화를 이해함에 있다. 이러한 이해가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함에 필수요소가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또한 동양어 역본들의 사용이다. 번역은 그 문화권의 정서를 반영한다. 그렇기에 베일리 박사는 아랍어

와 콥틱어 역본 등 팔레스타인 주변의 문화가 반영된 번역을 통해 세밀한 해석들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유의 문학적 구조이다. 이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강조한 부분이지만, 베일리 박사는 더욱 명쾌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 유대인들의 삶에 이미 자리잡고 있는 문학적 기법인 대구법과 수미상관법을 더 세밀하게 적용하고 발전시킨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해석과 저서들이 있지만, 베일리 박사의 이 책은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종현
크리스찬북뉴스 명예편집위원

미주평안교회 부흥성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강사 양한갑 선교사
동남아한센선교회
필리핀/미얀마 선교사

- 일시: 4월 27일(목) 저녁 7시 30분
28일(금)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9일(토)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30일(주) 오전 8시 30분, 11시
- 장소: 미주평안교회 (Vermont + 2가)



미주평안교회

담임 임승진 목사 T.213-381-2202 F.213-381-2535 www.mpcla.org
170 Bimini Place. Los Angeles CA 90004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평생 헌신한 여교역자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무대 뒤편에서

예전에 교회에서 같이 수고하고 동역했던 분들을 보면, 나는 남자 성도보다는 여자 성도분들과 더 많이 친하고 교류가 잘 이루어지곤 했다. 특히 나보다 연세 있으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과 많은 교류를 가지곤 했다.

그분들은 내가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힘들 것 같으면 자판기 커피라도 챙겨주면서 주방에서 반찬 하나라도 입에 넣어주시기도 했고, 힘든 일은 같이 솔선수범하여 도와주는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곤 했다. 심방을 가서 예배드릴 때, 작년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 고백하는 분들도 여럿 있었다. 교회가 힘들 때 그분들은 소리 없이 교회를 돕고 섬기며 흔들리지 않도록 힘쓰시는 모습을 보며 참 많은 감동을 받곤 했다.

그분들뿐 아니라 여전도사님들도 그러했던 것을 기억한다. 몇 년 같이 사역했던 연세 있으신 여전도사님은 상당한 목회 경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헌신적으로 사역하셨고 힘쓰시고 섬기셨다. 그분의 기도엔 언제나 뜨거웠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원에 갔다 오시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홀로 삭이시곤 했던 기억이 난다.

이번에 <여교역자로 살다>를 읽으며, 그때 만난 여전도사님들이 생각난다. 이 책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 현재 70, 80세가 넘는 분들로서 한국교회의 가장 어려운 시기 및 부흥기를 거친 분들이다. 이분들은 지금의 교역자들과는 학벌이나 조건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들이다. 이 분들 중 어떤 분들은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일반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거나 무인가 신학교 같은 곳에서 최종 학력이 멈춘 분들이 많다. 또 어떤 분들은 성도들을 돌봄에 있어서도 지금의 상담기법이나 균형 잡힌 심방과는 거리가 멀지 못한다.

하지만 이분들은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범위와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분들이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에 분이 되기보다는 -최근에도 세습이라는 문제로 다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심지어 욕을 먹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교회 안을 들여다 보면 그 안에서 열심을 다해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과 교역자들을 본다.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목회자가 설교를 잘 하고 목회를 잘해 부흥한 것도 동일일지



여교역자로 살다
임희국 역음
새물결플러스 | 260쪽

모르지만 드러나지 않게 사진에 기록 하나 제대로 남기지 않은 채 섬기고 헌신한 분들을 통해 교회는 유지되고 버텼었다 할 수 있다.

이분들은 어릴 적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기도 하고, 시골 촌락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극심한 시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남편을 일찍 사별하거나 지금까지 홀로 살아오면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순종하고 따랐던 분들이다.

앞서 언급했듯 이 분들 중에는 좋은 신학교육을 받지 못해 지금의 기준에서는 수준에 미달하는 설교와 상담을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당시 기준에서는 그런 속에서도 주님을 갈급해 하는 심령을 자신이 가진 수준에서 돌보고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 것은, 아마도 음식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것은 숨기는 속에서 자신의 떡과 빵을 내놓는 헌신을 보인-어쩌면 가족의 식사일지도 모를-소년의 헌신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여교역자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당시 부흥을 일으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이 시대는 머리 굴리는 목회자들이 많다. 존 머리의 영성은 구시대적이고 뒤떨어졌다 무시하면서, 잔 머리만 굴리는 학벌 좋고 재능 있는 목회자들은 많다. 헌신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은 헌신하지 않는, 말뿐인 목회자들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고 지금도 소리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이들을 사용하신다.

아마 사람들은 한국교회사를 기억하며 유명하신 목사님들과 신학자를 기억하며 부흥이 다시 오기를 고대할지 모르지만, 이번에 읽은 책처럼 한국교회를 지키고 섬긴 이름 없는 여교역자들처럼 지금도 빛도 없이 묵묵히 어려운 환경에서 수

고하는 헌신된 교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의 한국교회를 지키신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수고를 기억해야 한다. 책 중 한 분의 은퇴 후 고백을 인용해 본다.

“결혼을 안 한 것이 후회되지는 않지만 나이가 칠십이 넘고 나니까 쓸쓸하기는 해요. 안 그래도 명절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허전했는데 교역을 끝내니까 더 쓸쓸해요. 그래도 교역할 때는 명절에 집집마다 돌면서 예배 인도 하다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가정에서 식사를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더 외롭죠. 공부를 못한 것이 아쉽지만 시대를 잘못 만나 그런 것을 어쩔하겠어요. 이제는 그저 주님 앞에 잘 가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수고를 잊는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들의 수고에 무심하고, 어쩌면 이런 분들의 사역을 귀하다 여기지 않고 무시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교회를 세우는데 힘썼다는 것은, 이분들을 우리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

지금도 그런 것 같다. 이분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조명을 받는 분들은 집중해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잊곤 한다.

다시 과거를 기억해 본다. 그리고 지금을 돌아본다. 그때 그 여전도사님뿐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헌신된 주변의 사역자들을 기억한다. 자신은 코피를 쏟고 어떤 때는 오해를 받아가면서, 어떤 때는 제대로 먹지 못해 심지어 굶으면서도 다른 이들 섬기는 데는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는 사역자들을 기억한다.

그들은 숫자는 적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무대 뒤편에서 헌신한다. 비록 이 책에서 나온 분들과 상황과 환경은 다르겠지만 같은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이고, 또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다. 난 참 많이 내려놓았다 고 생각했고 나도 많이 헌신했고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아직도 내려놓지 않은 것이 많고 덜 헌신했고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것이 많음을... 세상의 유혹에 많이 무너지는 나를 다시 깨워야 할 때다. 마지 않을 땅을 깨고 이젠 썩을 내야 될 꽃처럼 말이다.

문양호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사회개혁 사상을 지향한 루소의 교육론

[송광택 목사의 인문 고전 읽기 14]



에밀
장 자크 루소 | 정병희 역
동서문화사 | 744쪽

프랑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문학자인 루소(1712-1778)가 <에밀(Emile, 1762)>을 집필하는 동기가 된 것은, 루소의 후원자인 슈농소 부인으로부터 자신의 교육에 관한 조언을 요구받은 다음이였다. 또 부인도 자식에게 교육적 서간을 보내면서 루소의 비평을 구하곤 했기 때문에, 이 부인과의 이야기 역시 <에밀> 집필의 동기가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책은 소설 형식을 빌린 교육론이다. 먼저 그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어린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한 사람의 이상적인 교사가 지칭되고, 그 교사가 그 후부터 25년 동안, 아니 거의 한 생애를 그 한 사람의 제자(에밀)의 교육에만 전심한다는 조건이 여기서 먼저 약속된다. 그리고 어린이가 5세에 이르기까지 이상적인 교육법이 서술된다. 이 기간의 교육은 신체의 단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2부에서는 에밀이 5세부터 12세가 되기까지 받는 교육이 서술된다. 교육 내용의 중점은 감각기관의 훈련에 두고 있다. 제3부는 12세부터 15세까지의 교육이 서술된다. 소유와 노동에 관한 루소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에밀에 대해서는 직업교육을 가르친다. 제4부에서는 15세부터 20세까지의 교육이 전개된다. 여기에서는 도덕과 종교를 가르치는데, 이와 관련하여 루소의 종교관이 <사보아 사제의 신앙고백>이라는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제5부에서는 에밀의 결혼 상대가 될 아가씨 소피가 받는 교육

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루소의 여성관과 여성 교육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 책에 나타난 루소의 교육론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교육의 목적은 어떤 경우라도 왜곡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인간 또는 자연인을 만드는 데 있다. 둘째, 인간의 몸과 마음의 발전 단계를 구별하여, 거기에 따라 알맞은 진도의 교육계획을 세운다. 셋째, 자연주의 교육론이다. 교육의 원리는 자연에 의해 직접 부여된 것이므로 교육은 자연이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자연의 법칙에 거역하지 말라”, “자연의 교육에 따라서 교육시키라”고 말한다. 넷째, 루소의 교육론은 아동 중심의 교육론이다. 인생의 모든 시절, 모든 상태에는 각기 고유의 완성과 성숙이 있다. 따라서 미래의 행복을 위해 어린이의 현재 행복을 희생시키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교육은 말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실물이나 실례에 의한 교육과 경험에 의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루소의 교육론 배후에는 사회개혁의 사상이 일관하여 흐르고 있다. 당시 사회를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혁명적 의식 위에서 루소의 교육론은 전개되고 있다. 때문에 이상적인 교사는 사회를 변혁시킨다는 강렬한 의욕을 보유한 인간이어야 한다. 이 책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아동 중심의 교육, 자연교육, 체육 중시, 감각기관의 단련, 자발활동 원리, 소극적 교육, 아동의 심리학적 관찰 등이다.

루소의 공적은 동시대 사람들과 전혀 달리 전통적인 교육관을 공격함과 동시에 당시의 주지주의적·합리주의적 교육관에도 반대하고, 독자적인 교육론을 확립했다는 점에 있다. 또한 후세의 교육사상에 끼친 영향 면에서도, 루소의 <에밀>은 고전의 위치에 우뚝 서 있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도운동종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고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이은수 목사와 함께 하는

굿네이버스 사랑나눔 찬양콘서트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NGO입니다



일정문의 (굿네이버스 미국법인): 877.499.9898 (한국어 2번)
Los Angeles Office: 3505 Cadillac Ave M201, Costa Mesa, CA 92626

Good Neighbors



'너는 내 아들이라'의 찬양사역자 이은수 목사가 전하는 이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은수 목사

현 음악감독 및 찬양사역자(1987~) 지금까지 총 6,000여회 집회를 인도해온 현 세미나 강사, 설교자, 작곡자, 예배인도자, 방송인(1987~)
현 LA 씨에라 호스피스 원목(2015~)
현 LA Shepherd University 교수(2015~)
현 굿네이버스 미국 나눔대사(2017~)

대표곡

'너는 내 아들이라', '야베스의 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늘의 약속',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포기하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등 다수.

Korean American Pastor Sees Opportunity for Growth in Seoul

Pastor Joel Yoon shares about his growing passion to see more “healthy, gospel-centered churches’ in South Korea

BY RACHAEL LEE

In many respects, Pastor Joel Yoon’s current position as the founding and lead pastor of a church in Seoul is a position that his younger self may have felt was completely out of his element.

Yoon, a Korean American from Chicago, used to want to “run away” from his Korean heritage and become as American as he possibly can. And Yoon had never considered himself a “pioneer type,” much less a church planter. He wouldn’t have imagined that he would one day plant a church, and in Seoul, South Korea at that.

But talk to Yoon today, and he may well share with you about his longing to see more and more healthy, gospel-centered churches being built up in South Korea, and his gratitude for the men and women of the faith in South Korea who have come before his generation.

While living and ministering in Korea, God has changed his perspective and grown in him a love for his Korean heritage and the Korean people, Yoon said. In fact, it wasn’t a love for the country that brought him to Korea – far from it, he had shied away from going to Korea because of his negative experiences with the Korean church.

It was a conviction to “bring a richer, glorious gospel of grace”

that led him to take an offer and serve as an English ministry pastor at a Korean church, and then to later plant Gospel City Church in Seoul.

“I came to Korea with that one conviction,” said Yoon. “While I’m here, I want to hold up the gospel and let the gospel do the work within our hearts and in the church.”

“Often it seems like people go to a country out of a love for the people, but I think God called me here out of a love for the gospel and the church – for the church to grow in Korea,” he added. “When that happens, God starts to give you a heart for the people too.”

“I want to ... let the gospel do the work within our hearts and in the church.”

That conviction has cultivated his desire to see more gospel-centered churches in Korea, as he describes it. And perhaps it’s this desire that has drawn them in, but many of the members of Gospel City Church are people who used to be disillusioned about church or “dechurched” – those who had drifted away from the church at

some point because of bad experiences, or simply not be able to take root in a community.

“We try to be very much authentic about our faith and learn to live it out,” Yoon said.

Gospel City Church consists of individuals in the Korean diaspora community, the non-Korean community, and the Korean native community. Yoon asked some of his Korean-speaking members, who make up some 20 percent of the church congregation as of late last year, why they chose to become members of Gospel City Church despite the language barriers. He received unexpectedly simple answers – and it wasn’t just that they wanted to practice their English.

“They told me, ‘It’s a gospel-centered church. You preach the gospel, and it’s about Jesus,’” he recalled.

On the one hand, these kinds of responses caused Yoon to question whether there is a lack of churches that clearly communicates that gospel message. But on the other hand, he saw this as an opportunity for both native and international pastors.

Indeed, many of the younger Korean pastors with whom Yoon has been interacting have noticed an increased disillusionment within the younger Korean population, and shared with him a hope to “do



Pastor Joel Yoon is the lead pastor of Gospel City Church, located in Itaewon.

church in a way that reaches the next generation of Koreans,” Yoon said.

But the same need exis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he added, and having international pastors with experiences in healthy churches come to South Korea could help to build up the church.

“I’m sure there are many blessed Korean pastors all over the world

who have seen healthy churches and who would be a great asset to Korea, especially if they’re bilingual,” said Yoon. “They have an amazing opportunity to impact the next generation in a very special and unique way.”

And if there are any who, like Yoon’s younger self, are shying away from Korea, they may find themselves being changed in the process, too.



About 100 religious leaders gathered at the prayer breakfast which took place on April 4 at Wilshire Boulevard Temple.

Remembering the L.A. Riots of 25 Years Ago, Faith Leaders Call for Unity

BY RACHAEL LEE

Where there is unity, there will be reconciliation and healing, according to religious leaders who gathered at an interfaith prayer breakfast on Tuesday, commemorating the L.A. riots that took place 25 years ago on April 29.

The two-hour-long prayer breakfast, which was attended by some 100 individuals, took place at the Wilshire Boulevard Temple and featured a panel and messages by Korean American, African American, Latino American, and Jewish American faith leaders.

“I’m so grateful for this morning,” said Hyepin Im, the president and CEO of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KCCD), which hosted the event. “This room is full of the diversity and strength of the city of Los Angeles.”

“We have come a long way in 25 years, but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said Rabbi Beau Shapiro of Wilshire Boulevard Temple. “And in our tradition, the only way to get there is to join hands, march together, pray together, and work together.”

During the panel, five faith leaders – Chris Halverson, a former U.S. Senate Chaplain; Rev. John Jongdai Park, a co-chair of the KCCD board; Mark Whitlock, the senior pastor of Christ Our

Redeemer AME Church; Jesse Miranda, the CEO of the National Hispanic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and Laura Geller, the Rabbi Emeritus of Temple Emanuel of Beverly Hills – shared their experiences at the time when the L.A. riots occurred.

John Jongdai Park’s experience with the L.A. riots included protecting one of his congregants’ stores in Long Beach overnight, with visits from a few groups of gang members who threatened to loot the store.

“I was afraid during that time,” Park said, “and I thought of the fear that that congregant would have felt over the previous few days.”

Park added that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riots weren’t the ones to blame, but the “evils” that caused the riots, such as poverty and injustice.

Jesse Miranda described the way he saw media portray the turn of events at the time. One particular photo featured in a newspaper, Miranda said, featured “a Korean merchant with a gun protecting his store, Hispanics taking the merchandise, and African Americans standing in the corner watching the action.”

“But the reality is,” said Miranda, “we are all responsible for what had happened.”

In a brief message during the

event, Michael Lee, the senior pastor of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encouraged those who gathered to “consider what are the ways God has blessed us, so that we can use those blessings to then bless others,” and said that just as God had blessed Abraham to be a blessing to all nations, “God has blessed us.”

“God has given us all that we need for life,” Lee said, and added that those resources can be used “to alleviate poverty, to fight injustice, and to give a voice to the voiceless.”

But there are also other, immaterial ways God gives his blessings, he added, such as giving grace, mercy, and forgiveness, which are just as necessary to bless others, and to take steps toward healing and reconciliation.

“Don’t get me wrong, there absolutely needs to be truth, accountability, justice, and change on all sides,” said Lee. “But if we can begin to offer real forgiveness and take steps towards real reconciliation and healing towards others, think what a blessing we could be to ... our city – the city of angels – to our state, to our nation, and to this great earth.”

Meanwhile, KCCD will be hosting another event on April 29 at Oriental Mission Church commemorating the 25th anniversary of the L.A. riots, from 3 to 6 P.M.

‘Views of Self, Others, and God Must Be Examined Before Marriage’

GIFT Counseling & Wellness Centers held its first ‘Eureka’ Conference for young adults.

The conference, which focused on the mental and relational health of young adults, took place on March 11 for English speakers, and on April 1 for Korean speakers.

Some 150 attended the March 11 conference at Sa-Rang Community Church in Anaheim, CA.

The main speakers for the event included the two founders of GIFT – Dr. Lydia Chun, a clinical psychologist, and Dr. Joseph Chun, a medical doctor – who shared their professional expertise, personal experiences, and spiritual perspective during

the sessions. The attendees, who also participated in small groups, learned about ways to become more self-aware; discovering my inner child; restoring a right image of God; and developing a healthy emotional and spiritual life; among other topics.

“Many young adults are leaving the church. Some have a negative perspective about marriage as they see their parents or their peers who are already married,” said Dr. Lydia Chun.

“We must examine whether we have a distorted view of self, of others, and of God, before getting married.”

For more information, visit giftheal.com.



The first Eureka Conference, hosted by GIFT Counseling & Wellness Centers, took place on March 11 for English speakers and on April 1 for Korean speakers.

Scholarship Opportunity for Korean Americans in Seminary

The Christian Scholarship Foundation of Greater Washington will be offering scholarships to Korean American seminary students once again this spring.

The foundation,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partnership of four local churches including Virginia Presbyterian Church, First Virginia Baptist Church, and The Church for All Nations, selects 10 to 12 scholarship recipients each year.

Those who are interested must meet a few criteria, including being a baptized Christian and “living a Christ-like life”; having completed college; being currently enrolled or attending a seminary; having

a “clear purpose to serve the 2nd and 3rd generation of Korean Americans”; and being a permanent resident or U.S. citizen.

Applicants must also submit an application letter, a testimony of faith, two recommendation letters including one from a senior pastor, and a transcript, among other items.

“We hope to give our best in nurturing and building up Korean American leaders,” said Ichon Lee, one of the chairmen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foundation.

The deadline for this year’s scholarship application is April 30.

For more information, visit kapastorscholarship.org.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4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More Pastors Pursue Racial Reconciliation Through Relational Means Rather than Through the Pulpit

Though many pastors have pursued racial reconciliation, more have done so through relational means or through prayer rather than through preaching, according to a LifeWay Research study released on Thursday.

When asked, “Which, if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have you personally done in the last 3 months to encourage racial reconciliation?” most of the 1,000 pastors who were surveyed (57 percent) said they “spent time socializing with neighbors of other ethnicities.”

About 44 percent of the pastors said they shared a meal with a small group of people with at least one other person

who was of a different race within the last week, while 29 percent said they did so within the last month.

The next most popular method by which pastors encouraged racial reconciliation was leading times of corporate prayer for racial reconciliation (53 percent).

Meanwhile, a little less than half of the pastors surveyed (45 percent) said they did so by preaching on racial reconciliation.

It seems that many leaders in the church also have not pushed their pastors to preach on the topic either, as 73 percent of the pastors said they had

not had church leaders urging them to preach about racial reconciliation. But 90 percent of pastors said their congregations would welcome such sermons on the topic.

Pastors who were of an ethnicity other than White or African American were most likely to say that their church leaders urged them to preach on racial reconciliation (38 percent).

Along denominational lines, Presbyterian/Reformed pastors (37 percent) and Methodist pastors (34 percent) were most likely to say that leaders in their churches have encouraged them to preach on the topic.

Do Religious Organizations Count as ‘Church’ in Pension Plan Exemption? Supreme Court Weighs Arguments

The outcome of a case currently before the U.S. Supreme Court regarding pension plans may dramatically affect hospitals, schools, and other non-profits with religious affiliations across the country, according to lawyers involved in the case.

The case, *Advocate Health Care Network v. Stapleton*, involves hospital employees and three religiously affiliated hospitals: Advocate Health, St. Peter’s Healthcare System, and Dignity Health.



The Supreme Court heard oral arguments on March 27 on whether the pension plans of religiously affiliated hospitals are exempt from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 of 1974. (Photo: Phil Roeder / Flickr / CC)

The employees argue that their employers have violated a 1974 law called 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by not funding their pension plans sufficiently, and not communicating written procedures related to the plan, among other violations.

But the hospitals argue that they are exempt from ERISA because of what is known as a “church plan exemption,” under which churches and organizations with church ties have been able to forego the ERISA requirements.

During oral arguments before the Supreme Court on March 27, the question of whether these hospitals, and other organizations with religious ties, should have that exemption was the central point of deliberation. Do religiously affiliated hospitals and organizations such as schools, daycare centers, or charities count as “church”? If not, does the statute still exempt pension plans that are maintained by religiously affiliated organizations?

Should the Supreme Court rule against the hospitals, they would be compelled to pay significant amounts in premiums, according to Eric Baxter of Becket, a law firm which argued on behalf of the hospitals, adding that many non-profits may even need to close their doors.

Baxter argued that church can’t only be seen as a place that holds religious services, and that the service aspect carried out by religious non-profits is a crucial part of what defines church.

“Churches aren’t just organizations that conduct worship,” Baxter was quoted by Religion News Service as saying. “Churches go out and serve the most needy among us and they shouldn’t be penalized because they preach on Sunday and practice it during the week.”

It is unclear how the Supreme Court will rule, and at one point during the oral arguments, Justice Sonia Sotomayor said frankly that she is “torn” as to how to interpret the statute.

“This could be read either way in my mind,” she said.

Sotomayor was referring to the two different ways that the definition of “church plan” has been interpreted. The statute definition of what counts as a “church plan” has two portions. First, pension plans “established and maintained” by a “church or by a convention or association of churches” count as a church plan.

But the second portion is at issue in this case. It expands the definition of “church plan” and says that a pension plan “established and maintained” by a church “includes a plan maintained by an organization ... if such organization is controlled by or associated with a church or a convention or association of churches.”

“The text does not require a church to establish benefit plans for someone else’s employees,” Lisa Blatt of Becket, who represented the hospitals, asserted during the oral arguments. In other words, as long as the pension plan is maintained by a religiously affiliated organization, it doesn’t have to have been established by a church.

James Feldman from Washington, who represented the employees, argued that a “church plan has to be ... established and maintained by a church.”

“It needs to fit both criteria,” he said. If religiously affiliated organizations count as a “church,” then they would be exempt from ERISA regardless of how that second portion is interpreted. But if only houses of worship that have religious services count as “church,” the interpretation of that portion could be crucial as to whether those organizations could still have a church plan exemption.

Justice Stephen Breyer asked Feldman at one point about Little Sisters of the Poor, and whether its pension plan would be exempt in varying scenarios – if it were established by the Catholic

church, or not, etc. Here’s the tail end of that exchange between Justice Breyer and Feldman (starting with Justice Breyer):

“But I mean, if it’s a legitimate organization, like, let’s say the Little Sisters of the Poor, really affiliated with the church, you know, really affiliated with the church, they do have a lot of involvement –

“And if they really are part of the church, I would add one other thing. If they really are –

“Yes, they really are the church, and they retained a – purpose.”

“– part of the church and they can qualify as a church, that’s fine.”

Meanwhile, Justice Sotomayor questioned whether large hospitals like Dignity Health – which employs some 60,000 people – could be considered a “church” when they function almost the same way as any other non-religious hospital, and whether it was the intention of Congress to allow such hospitals to opt out of providing protections in their employees’ pension plans.

“Do you think Congress had in mind a – corporations that are essentially like every other corporation except they’re not for profit? I mean, these hospitals, some of them, like Dignity, the Catholic church has disavowed any formal affiliation with it,” said Sotomayor.

“They’re not doing anything different than any other hospital – or care center,” she went on. “Do you believe that Congress’s vision was to let, what is essentially, a corporate entity opt out of protecting all of those employees?”

So far, the Third, Seventh, and Ninth Circuit Courts of Appeal have ruled in favor of the employees. However, several federal district courts have ruled in favor of the hospitals.

The Supreme Court is set to rule on the case by June 30.

North Carolina’s Controversial Bathroom Bill Repealed

North Carolina passed a bill on March 30 to repeal a contentious law that had required individuals to use restrooms at public facilities according to their biological sex rather than their gender identity.

The new bill, HB 142, was passed with a 70-48 vote in the House, and a 32-16 vote in the Senate. North Carolina Governor Roy Cooper signed it into law on March 31.

HB 142 repeals what has been known as the “bathroom bill,” or HB 2. It also restricts the state government – and all of its agencies, boards, and universities – from regulating access to restrooms, showers, and changing facilities “except in accordance with an act of the General Assembly,” as well as prohibits local governments from passing or changing laws regulating employment and public accommodations in private businesses, both until the year 2020.

The repeal comes after two failed attempts and more than a year of tension over the bathroom law.

“I support the House Bill 2 repeal compromise that will be introduced

tomorrow,” said Cooper the night before the bill was voted on. “It’s not a perfect deal, but it repeals House Bill 2 and begins to repair our reputation.”

North Carolina faced much backlash since HB 2 was passed in 2016. Most notably, the NCAA announced it would no longer host its championship basketball games in the state after North Carolina passed the law.

The NCAA released a statement on April 4 stating that North Carolina will now be included in its process of selecting the site for championships, and that the previous decision to host the 2017-18 championships in the state will remain.

“We have been assured by the state that this new law allows the NCAA to enact its inclusive policies by contract with communities, universities, arenas, hotels, and other service providers that are doing business with us, our students, other participants, and fans,” the NCAA said in the statement.

Meanwhile, the new law was still met with measured embrace as well as criticism from both sides of the aisle.

Some saw it as a commendable compromise, while others on both ends saw it as an effort that didn’t produce satisfactory results.

“This bill is at best a punt. At worst it is a betrayal of principle,” said Republican Senator Dan Bishop, a primary sponsor of HB 2 who opposed the new bill.

Republican Representatives Tim Moore and Phil Berger said in a joint statement that they are “pleased this proposal fully protects bathroom safety and privacy,” as it allows state legislators to determine the regulation of facilities like restrooms, and also prevents local governments from passing ordinances on public accommodations until 2020.

Some LGBTQ activists criticized the bill, saying that it isn’t a complete repeal of HB 2 and still enables discrimination.

“This ‘deal’ does NOT repeal #HB2. It’s simply another version of HB2 dressed up in a way desperate lawmakers hope will save state’s economy,” tweeted Chad Griffin, president of the Human Rights Campaign.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lafgc.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1:45 PM

PASTOR MITCHELL PEREZ

The Home Church

19100 E. Killian Avenu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오픈뱅크와 라디오코리아 아침마당이 함께하는

사랑의 크루즈

한인사회 최초로 선보이는 최대 규모의 나눔 프로젝트!!

가족과 함께 떠나는 무료 3박 4일

멕시코 엔시나다 크루즈 여행 (7월 7일 출발)



바쁘고 힘든 이민생활을 이어가는 한인 가정과 함께 희망과 용기를 나누기 위해 오픈뱅크가 라디오 코리아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과 자녀들을 응원합니다. 매년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오픈뱅크의 약속이 이번 여행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뜻 깊은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청 대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가족들의 사연을 편지에 담아주세요. 가족 여행을 한번도 떠나지 못한 분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애뜻한 사연을 라디오 코리아 아침마당으로 보내주시면 1차 선별 후, 개별 방문의 절차를 거쳐 최종 30가정을 선정하여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 모두 무료로 사랑의 크루즈에 모십니다.

신청 방법

우편 참여 주소: Radio Korea
(아침마당 담당자 앞)
3700 Wilshire Blvd. #600
Los Angeles, CA 90010
카카오톡 참여: radiokorea1540
홈페이지 방문: www.radiokorea.com



다양한 프로그램

라디오 코리아 아침마당 진행자 김형준씨와 우정아씨 및 사회 저명 초청 강연자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한 유익하고 알찬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신청 날짜

2017년 4월 21일 사연 신청 마감
2017년 4월 24일~28일 1차 선별 가정 방문 인터뷰
2017년 5월 1일 30가정 최종 선정



푸짐한 경품

여행하시는 동안 선상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위한 푸짐한 경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나눔 이벤트에 흔쾌히 동참해주신 김형준씨와 우정아씨, 그리고 엘리트 투어 빌리 장 사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품에 참여해주신 업체와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지사항]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선정기준과 판단은 주관처 재량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213) 487-130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주세요.

주최



주관

특별
협찬

엘리트 투어